



대구광역시 일보



대한민국 여자경향 되기 참 힘드네...

대구 여경 8명 모집에 698명 몰려, 8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무학로 대구지방경찰청 무학체육관에서 열린 2015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신체·체력 검사에서 응시자가 팔굽혀 펴기하고 있다.

금연... 흡연자 길거리 내몰아

중앙도서관 이용 흡연자들 국채보상공원에서 눈치 담배

중앙도서관 주변이 온통 담배꽂초 투성이다. 대구시립중앙도서관은 금연 건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탓이다. 때문에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흡연자들은 공원 등지에서 길거리 흡연을 하고 있다.

#1 중앙도서관서 공무원시험 준비 중인 박모(31)씨. 그에게 취업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흡연이다. 도서관은 물론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하 '국채보상공원')이 금연구역이지만 그는 단속의 손길을 피해 중앙도서관 주변서 어쩔 수 없이 숨바꼭질 흡연을 하고 있다. 이처럼 시간에 쫓기는 취업준비·재수·대학생 흡연자들이 잠시 쉬는 시간에 흡연할 장소가 없어 곤혹스럽기만 하다.

그렇다고 금연구역을 벗어나 멀리 주택가 골목에까지 가서 흡연을 하기에 너무 불편하다. 다행히(?) 중앙도서관 정문 앞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지하주차장 입구 등 10여 곳에 재떨이 기능이 있는 쓰레기통이 비치돼 있어 불법인줄 알면서도 흡연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에겐 '흡연버스'가 없다는 사실이 오른 담뱃값보다 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갈 곳 없는 중앙도서관 이용 흡연자들이 도서관 앞마당이나 공원벤치에서 흡연을 하고 있어 비흡연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2 중앙도서관 정문 주변엔 노숙인들의 고단한

삶이 유지되는 공간이다. 인근 삼덕동 관음사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을 먹은 후, 막걸리와 소주를 앞에 놓고 담배를 피면서 이 야기를 하고 있는 노숙인들을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쫓겨나기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사치일 수도 있다. 흡연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경찰관 A씨는 "노숙인들에게 쫓겨나기 때문에 지구대에서 과격행동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봉사단체회원 최모(63)씨는 "금연구역 지정과 단속만 하지 말고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 흡연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을 이해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퇴직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준비 중이라는 애연가 김모(55)씨도 "금연건물인 중앙도서관 밖을 나와도 담배를 피울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며 "도서관 이용객들과 공원 나들이객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를 마련해 줘야지 단속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송종관 기자



오늘의 Hot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2015세계물포럼조직위 부위원장에 선임...

2015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위원장 이정무)는 대성그룹 김영훈 회장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세계물포럼은 지구촌 최대 물 관련 행사이다. 대성그룹은 제7차 세계물포럼의 로 알등급의 동반자로 참여해 행사를 성공 개최를 지원한다. 대구 경북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은 새달 12일(4월15일까지) 화려하게 막 오른다. 이 행사에 170여 개국, 약 3만5000여명이 대구 경북을 찾는다. 김영훈 회장은 2013대구세계에너지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풍부한 경험과 현재 세계에너지협회 공동회장으로서 국제무대에서 구축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7차 세계물포럼의 고위급 초청과 대외업무에 지원한다. 세계물포럼의 주요과정인 주제별 과정에서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물과 에너지' 이슈를 주도하고, 이들 양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주요 참가자들의 네트워킹 구축에도 주력한다. 세계물포럼을 주최하는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와 세계에너지협회(WEC)는 2012년 수자원 개발과 관리에서의 에너지 활용 방안 마련 및 에너지효율성 향상 등 상호협력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세계물포럼에서도 '물과 에너지'를 주제로 하는 여러 세션에서 다양한 협조 방안이 논의된다. 대성그룹은 몽골,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에콰도르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수자원을 개발해 식수와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 에너지, 물,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라워 프로젝트'를 10여년째 진행하고 있다. 김치역 기자

대구시 기부채납 유혹... 대부료 4억4천만원 날려

(3)철거대상 건축물 11년 350일 무상사용?

대구시 공영주차장 내 상업용 시설 무상사용허가 업무 미숙 주민권리 제한하는 동구 허가 민원협의회 폐지 하는게 마땅

대구시가 공영주차장 내 상업용 시설 무상사용허가 업무 미숙으로 대부료 4억4000만원을 날렸다.

동구청은 건축법에 없는 규제로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

건축법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구시동구허가민원협의회운영지침이 발목을 잡은 꼴이다.

이 지침은 동구청이 2001년 10월30일 제정, 허가민원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내 상업용 시설 무상사용허가 부적정

대구시는 2013년 11월26일 대구 북구에 있는 모 협동조합으로부터 제조업소 용도의 건축물(산격2동에 있는 지상 2층 연면적 578.67㎡)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접수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와 2013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행정재산 외 일반재산은 무상사용·수익 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운영해야 하는 상업적 성격의 시설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해당, 무상사용 허가조건으로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제조업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3년 12월30일 산격2동에 있는 문제의 건축물을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았다.

대구시는 문제의 건축물을 11년 350일간 무상사용 허가하는 것으로 K단지 모 제조업소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허가 계획을 수립, 지난해 1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했다.

결국 철거대상인 건축물을 모 조합이 무상사용하도록 해 일반재산으로 기부채납됐을 경우 대구시에서 받을 수 있는 대부료 4억4000여만을 받지 못하게됐다.

이 사실을 적발한 감사원은 대구시장에게 모 협동조합으로부터 행정재산으로 기부받은 제조업소 용도의 건축물을 일반재산으로 전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동구청 없는 건축법 주민 권리 묵살

동구청은 2001년 10월 허가민원협의회로 통해 건축허가를 결정하고 있다.

허가민원협의회는 2012년 11월 5일과 2013년 1월 24일 동구에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신청사항을 심의, 주위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 결정했다. 그동안 허가민원협의회는 200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77건의 건축허가 민원을 심의한 결과 전체 74%에 이르는 57건(불허가 16건)을 불허가 또는 유보결정해 건축법에 없는 규제로 주민 권리를 위법하게 제한했다.

실제 대구지법은 동구청이 2012년 7월, 2013년 2월 불허가 처분한 건축허가에 대해 민원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제한했다고 판결내렸다.

감사원은 동구청장에게 주민권리를 제한하는 방안 마련하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김성용 기자

BALENKEY
밸렌키

제27회 대구컬렉션
발렌키 패션쇼
2015.03.12(목)pm_02:30
대구시 북구 산격동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2F 패션쇼장

"남자의인생"의 제2의 나훈아
가수 **홍원빈** 특별공연

발렌키와 함께하는
2015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열정의 레이스에 도전하세요

- 일시: 2015. 4. 5(일) 08:00
- 장소: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종목: 울코스(Sub-3), 하프코스, 10km, 건강달리기
- 신청기간: 2015. 3. 13(금)까지
- 참가신청: 대회홈페이지 (http://marathon.daegusports.or.kr)
- 문의전화: 053-355-3872~3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경주가 시끌시끌

시민들은 연장 반대 경주시는 나몰라라

지난달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경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새벽1시 날치기 투표와 꺾수의결로 인해 동경주 주민과 경주시민, 시민단체에서 연일 반대 성명서를 내고 연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3일 오전10시 경주시청 본관앞 예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원천무효선언, 동경주 대책위(공동대표, 신수철)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비가오는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경주 대책위는 정부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경주대책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원천무효선언과 원전폐쇄를 거듭 주장해 동경주지역(갑포, 양남, 양북) 주민들과 한수원, 경주시와의 강력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성명서에서 대책위는 원안위의 위법적 날치기 통과와 인근주민들을 무시한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성토했다. 인근주민들이 추운겨울, 한달여 동안 3번의 상경집회를 한 반면 원안위는 4명의 일부위원이 단 한 번 동경주지역을 방문한 것 뿐, 무성의한 원안위는 단 세번의 심의 후 날치기통과를 감행한 불법을 자행했으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내용에 대해 단 한번의 주민공청회조차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대책위는 현재 월성1호기의 안전평가결과 안전개선사항이 발견됐음에도 연장가동 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원안위의 이러한 행태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험물을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원안위원 자격이없는 사람이 주민수용성을 수명연장 허가후 진행해도 된다는 위법한 절차로 표결을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원전인근주민 의사를 완전무시한 원안위원장과 표결참가 7명의 위원들의 즉각사퇴를 촉구했다.

■ 월성1호기의 위험성

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사고, 최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재발예상

원전인근 주민들의 각종 암질환 등 생명위협과 이로 인한 재앙같은 생태환경 파괴 심각성 등이다.

■ 원자력 전문가들의 지적사항

원자력 전문가 그룹인 '원자력 안전과 미래'에서도 지난2일 성명서에서 월성1호기의 사실상 폐쇄를 주문한 바있다.

첫째, 원자로 격납용기의 문제점은 원전사고와 직결

둘째, 원자로의 사용연료가 중수로 원전에서, 매일배출시 격납용기가 개방되는 설계상의 취약점지목

셋째, 월성 2, 3, 4호기에 적용된 격납용기수문과 격납용기 관통배관 이중 차단밸브 설치 압력강화조치

■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위법성

하나, 원자력안전법에 명시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미공개

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전면무시

셋,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후, 32가지 안전개선



사항, 심의 미반영
넷, 심의의원중, 2명의 연장반대의사에도, 날치기 통과시킨 점

■ 경주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의 무관심

경주시장은 수명연장 표결강행 후 만나질만에 연장수용발표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시·도의원들의 무관심한 태도는 동경주인근 주민은 물론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와함께 경주시와 지역구의원들의 경우 인근고리원전1호기 연장반대를

수명연장 날치기승인
국회에서 반드시
재심사 해야한다

여년 이내에 폐료가 되는데 그 지역은 방사선 위험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을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이다.

새정치연합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는 추가 건설보다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 감시의 중요성, 폐로준비와 폐로 이후의 지역발전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정지역 경북을 원전으로 가득 채우면 향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누가 구매하려할 것이며 관광객들은 다시 세계적 문화관광도시 천년고도 경주를 찾지 않을것이다. 이제는 진지하게 미래세대를 생각해야 할때다.



■ 환경단체·지역주민들의 반응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상홍)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을 폭넓게 검토후 재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법과 규정을 무시한 날치기이고 원안위 결정은 무효이며 국회에서 반드시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표결처리에 반발했던 김익중교수(동국대의대)

한편 현지주민인 김모씨(여·62·양북면 봉길리)는 "60 평생 살아온 고향인 이곳이 원자력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살기싫어 나가려해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고 방송에서 위험하다고 해서인지 장사도 잘되지 않고 앞으로 남아있을 자식들이 정말 걱정이라"며 원망섞인 한숨을 토로했다.

아울러 양남면 나아리에 거주하는 최모씨(60)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조그마한 고깃배로 하루 하루 살아가는 어부이지만 방폐장을 찬성했던 지난 시절이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이었다"며 "지금은 방폐장에 월성원전 때문에 동네민심이 이쪽저

쪽 나뉘져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된 것이 답답한 현실이다"고 했다.

■ 월성원자력의 입장

한수원에서도 지난 2월 24일 동경주대책위 33명을 대상으로 월성원전의 계속운전 상황설명 간담회를 충분히 실시했으며 계속운전 결정후 현재까지 주민수용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월성1호기의 기술적 안전성 뿐만아니라 지역주민과의 무너진 신뢰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계속 강조하고있다. 아울러 대책위는 "주민들의 주장과 요구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원안위 결정에 있어 원전의 기술적인 문제는 월성원전도 아니고 한수원도 아니며 원자력안전연구원에 있음을 시사했다.

새정치 민주연합 경주시 지역위원회(위원장 이상덕)는 지난 3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철회 원안위의 표결처리강행은 국민배신행위로 규정했다.

이날 회견에는 경주시 지역위원회 이상덕 위원장을 포함해 시의원 비례대표 정현주(경주대학교수), 김수호(노인분과위원장), 손미옥(여성분과위원장), 한영태(지역운영위원장)청년위원장의 지역당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성명서에서 원안위가 한수원의 요구만을 가지고 동의절차를 밟는 해프닝을 벌였다고 했다.

아울러 경주시장의 전격적 수명연장 수용을 비판하고 지역구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의 무대응도 함께 지적했다.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성명서에서 "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상기시키며 안전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이번 결정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7차 전력수급보고서에 의하면 "노후원전인 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지 않아도 2025년까지 설비 예비율이 20%를 넘어 전력수급은 안정적이라고 밝히고도 위험한 월성1호기를 연장가동한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장철회가 당론인만큼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중앙당및 경북도당과 협의해 수명연장철회를 위해 시민들과 최선을 다할것을 밝혔다.

이원우 기자





대구광역시

2015년 3월 11일 수요일 3

경북도체육회, 2015년 정기 대의원 총회 열려

경북최고체육상 12명 선정·시상

경북도체육회는 10일 호텔 인터불고에서 2015년 정기 대의원 총회 및 최고체육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총회는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후 2014년 사업결산, 규약 개정 등의 안건의결순으로 진행됐고,

2014년도 경북체육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체육인을 선정(본상-개인 7명, 단체1팀, 특별상-개인2명, 단체 2

팀) '경북 최고체육상'을 시상했다.

'경북 최고체육상' 본상부문 공로상에는 서중호 전 경북테니스협회장이 지난 8년간 경북테니스협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전국체전 및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성적 입상과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북도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수상했다.

지도상에는 지난 4년간 전국체육대회 출전해 한국신기록 6회, 금5, 은1, 동4개를 획득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김기홍 안동시청 롤러팀 감독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최우수상에는 전국체전에서 4연패(2011-2014)한 김재강(철곡군청 레슬링팀)선수과 지난 3년간 전국체전에서 금3, 은2, 동2를 획득한 신지영(경북체고 사이클팀) 선수가 수상했으며, 최우수단체상에는 전국체육대회에서 한국신기록(3개) 및 대회신기록(3개)을 수립하고 금17, 은2, 동7의 메달을 획득,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북도청 핀수영팀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신기록상에는 '제95회 전국체전'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김서영(경북도청 수영팀), 이명규(안동시청 롤러팀), 김현진(경북도청 핀수영팀) 선수가 각각 수상했다.

특별상에는 경북스마협회가 모범경기단체



상을, 문경시체육회가 시·군지부상을 수상했고, 김용선시(포철고 축구팀 김덕중 선수 父)와 최정자씨(경북체고 수영팀 김가을 선수 母)가 장한아버이상을 수상했다.

김치역 기자



경북농민사관학교, 부농의 꿈 농업인재 양성 요람으로 우뚝

경북농민사관학교가 10일 2015년도 합동개강식을 열고 농업전문CEO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2007년에 설립돼 9년째를 맞는 농민사관학교는 '어지간한 대학보다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농업인재양성 대표모델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해마다 입학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고, 올해만 해도 평균경쟁률이 1.9대 1, 최고 경쟁률은 무려 7.2대 1에 이른다.

그간 사관학교가 배출한 졸업생들의 성공스토리로 각 분야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경산에서 개당 2만원의 금복숭아를 생산하는 조국행씨와 농민사관학교 수료 후 칠곡으로 귀농해 진짜배기 전통장 만들기 열정에 올인하고 있는 태장고 정경태 대표, 청송 주왕산 기슭에서 사과조절 짙짙을 생산하는 청송사과쌀짙짙 구남보 대표 등은 '농민사관학교를 통해 인생이 바뀌었다'고 스텝없이 말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졸업생들이 농민사관학교를 통해 역대부농의 꿈을 일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관학교의 성공에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우선 철저한 수요자와 현장중심으로 이뤄지는 교육시스템이다. 사관학교에는 소위 구색 맞추기식 과정이 없다.

매년 수요조사와 교육만족도 평가를 통해 수요가 감소하는 과정은 과감히 폐지하고, 올해 신설된 6차산업화 과정처럼 새롭게 부각되는 정책이슈는 선도적으로 반영한다.

교육 장소와 시기도 수요자인 농업인에 맞춰 결정된다.

김관용 지사의 리더십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지금이야 모두들 최고의 치적으로 평가하지만, 사관학교를 처음 설립할 당시만 해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농업인들조차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김 지사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사람이 있는 한 우리 농업은 희망이 있다! 한중FTA 등으로 모두들 위기라고 말하지만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경북농민사관학교가 그 중심에 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경운대 벵카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이날 합동개강식에는 신입생 1000여 명과 김관용 도지사와 구미시장, 9개 참여대학 관계자들과 농업인단체장 등 각계 주요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해 농민사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

농민사관학교는 작년까지 1만 33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올해도 총 64개 과정에 1894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김치역 기자

경북도, 대학생 해외인턴 모집

경북도는 지역 대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 대학생 해외인턴'을 모집한다.

올해 대학생 해외인턴은 총무·전산·디자인·무역·호텔 등 12개 분야에 54명을 2차에 걸쳐 모집하며 파견기간은 1년이다.

해외인턴은 도내 소재 2-4년제 대학교의 30세 미만 재학생·휴학생·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각 대학의 취업지원부서에 지원원서를 제출하고, 각 대학에서는 지원원서를 취합해 도 글로벌통상과로 추천하게 된다.

김치역 기자

2년 연속 전국 최다 실적 주민밀착형 생활권사업 선도

경북도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5년 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프로젝트' 공모에서 안동중추도시 생활권의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관광일자리 창출' 등 총 9개의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생활권 선도사업은 신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의 확산과 촉진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생활권을 구성한 지자체에서 NIMBY해소, 교육·의료질 개선, 생활인프라 구축, 일자리창출 등 주민행복 증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해 시·군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전국 63개 생활권(경북도 참여 생활권 13개-경북도 주관 11, 타시도 주관에 참여 2)이 공모한 94건을 대상으로 서면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42개 사업을 선정했다.

도는 9개 사업이 선정돼 21%를 점유 전국 최다의 실적을 자랑하며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올해 지원되는 국비는 총 320억원으로 선

정사업은 사업기간 3년 이내에 사업당 30억원 한도 내에서 국비가 지원된다.

사업선정 기준으로 주민체감 등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추진체계, 참여지자체의 시너지 효과, 성과창출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기존의 부처예산사업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창조적 신규사업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사업비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전문 컨설팅을 거쳐 4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선도사업 9건 중 먼저 안동중추도시 생활권(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의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관광일자리 창출'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통·번역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통역 및 해설 인력의 수급불일치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질 개선과 생활권의 공동발전에 이바지 할 전망이다.

문경·상주·예천 생활권의 '오피움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공동 운영' 사업은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됐던 농특산물 판매장을 생활권에서 공동 운영해 홍보·유통·물류비용 등을 절감하고, 이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그

수익을 지역농민에게 돌려 주기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경산·영천·청도 생활권의;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 사업은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고사리, 표고버섯, 오갈피 등 청정식품이 대부분 소규모로 분산돼 재배되던 것을 생활권에서 시간간 협력을 통해 생산, 품질관리, 브랜드화, 상품화 등 통합관리해 농가의 신규소득원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의성·군위 생활권의 '의성·군위 여성 유희노동력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삶의 만족도나 낮은 50세에서 69세까지의 시니어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생활권 맞춤 일자리를 창출하고, 식품회사 보육을 통한 간접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으로 시니어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영덕·영양·울진 생활권의 '낙동정맥 오지마을 의료서비스 구축' 사업은 대중교통 접근이 제약된 대한민국 대표적 오지마을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정기적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을 실시 주민 삶의 질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김천시와 전북 무주군, 충북 영동군이 연계한 삼도봉생활권의 '산골마을 OK! 행복버스

운영'사업은 주민의 의료서비스 개선과 문화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산골마을 이동영화관을 제공한다.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 강원 영월군이 연계한 소백산생활권의 '수경지역 ECO자원 연계'를 통한 주민 HI-UP 프로젝트'는 교육(Education), 문화(Culture), 한방의료(Oriental medicine) 등 도농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주민의 건강 증진 등 주민의 행복지수(Happiness Index)를 향상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연계한 울산중추도시 생활권의 '울산-경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동일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교통이용에 불편했던 점들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치역 기자

경북, 생활권 선도사업 전국 최다 선정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회의

자치단체 지원협의회·추진단 발족 경북도, 10월 대회 준비체제 돌입

경북도는 지난 9일 경북도청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의 효율적인 지원과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지 지원협의회'를 발족한 후 제1회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주낙영 도 행정부지사(회장), 대회 개최지 8개 부시장 및 부군수, 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간사), 체육진흥과장이 참석했으며, 개최지인 8개 시군에서 대두되는 현안문제인 대회관련 체육시설 보완, 경기장 주변 등의 환경정비 사업, 개최 시군 대회 관련 조직 설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와 개최지 8개시군 부시장, 부군수들은 합심해 단결할 것을 결의했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경북도와 8개 시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국 선수단 및 관람객들에게 도내 각 지역에 열리는 다양한 축제와 도내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맛있게 해 경북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이번 대회가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북한 선수단이 대규모로 참석하는 대회이므로 경기장, 선수촌, 선수단·관람객 이동경로 주변의 스타트 지붕 교체, 불량주택 철거, 꽃길 조성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경북도에서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돼 지난 3일 '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을 설치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단은 도 문화관광체육

국국 산하의 신설 조직으로 대회종료 시까지 운영된다. 추진단장으로는 이경곤 서기관이 임명됐고, 앞으로 대회 조직위원회 및 대회개최 시군과 함께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이에 발맞춰 이미 지원단이 설치돼 있는 문경시의 포함, 김천, 안동 등 7개 시군에서도 별도의 전담조직을 설치키로 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국제종합대회 중 올림픽과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종합국제스포츠대회로 금년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경북문경의 국군체육부대 등 8개 시군에서 진행된다.

1995년 1회 대회 이후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우정과 연대(Solidarity) 실현', '소통과 화합을 통한 세계의 평화(Peace) 실현', '영광과 평화를 통한 인류애(Humanity)의 정신 실현'을 모토로 100여 개국에서 8700여명의 각국 군인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시작은 지난 1948년 2월 18일 프랑스, 덴마크, 베네룩스 3국 등 5개국이 힘을 모아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CISM)를 창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한국은 1957년 그리스의 추천으로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북한도 1993년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의 회원국이 됐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1회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총 다섯 번의 대회에 모두 참가했으며, 각종 군인체육대회에 약 150여회 출전에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이번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축구, 유도, 레슬링 등 일반종목 19개와 육해공군 5종, 고공강하, 독도등 돌 군사종목 5개 등 모두 24개의 종목이 문경시 등 경북 8개 시군에서 분산돼 개최된다. 김치역 기자



경북도, 2015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보육교직원 2500명, 자질함양 아동학대예방, 안전관리 등 주력

경북도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자질함양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보수교육은 도에서 위탁한 8개 우수 전문교육기관에서 다음달 11일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일반 및 특별직무교육과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등 4개 분야로 나눠 직무교육 40시간, 승급교육 80시간을 실시한다.

교육비용은 일반 및 특별직무교육 6만원, 승급교육 12만원, 원장사전직무교육은 16만

원이며, 일반 및 특별직무교육의 경우 교육이 이수한 현지 보육교사는 교육비 6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올해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인성함양 및 아동학대예방, 영유아 안전교육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11일부터 보육인력 국가자격증(chrd.childcare.go.kr)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교육생은 각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신승숙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보수교육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치역 기자

유아숲체험원서 자연 느끼고 오감체험 좋아요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경주·포항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업무협약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은 10일 경주·포항 지역 20개 유치원·어린이집과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주제일어린이집 등 20개 기관의 원장과 산림환경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은 유아숲체험원의 성공적 운영과 협력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교육에 기여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이 자연그대로의 숲에서 맘껏 뛰어놀며 만지고, 보고, 느끼는 등 오감을 통한 자연 체험학습장이다.

산림환경연구원 유아숲체험원에서는 1억 4800만원 예산으로 대나무 숲길 및 놀이시설 등을 상반기에 조성해 최적의 공간에서 숲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5명의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와 함께 꽃과 나무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주고 월별 특색 있는 테마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치역 기자

사회

대구광역시

2015년 3월 11일

수요일 4

술·담배 판매업소 표시 의무 '청소년 판매 금지'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곳은 앞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 무'를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 제 28조의 시행에 앞서 표시 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보호법 제 28조는 오는 25일 시행된다.

앞으로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술·담배 판매처는 40cm 이상·10c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담배자동판매기는 5cm 이상·15cm 이상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한다.

표시하지 않을 경우 여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심장정지 환자 증가세 전년비 3.1% 늘어

지난해 심장정지 환자가 2013년보다 3.1% 증가했다. 반면 응급처치 뒤 맥박이 돌아온 경우도 같은 기간 0.8% 상승한 5.3%로 나타나 현장에서의 초동대처가 환자의 목숨을 되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구급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장정지 환자가 지난해 대비 3.1% 증가한 3만309명이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심장정지 환자 숫자는 119구급대원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한 167만8382명 중 1.8%에 해당된다.

이중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후 병원 도착 전에 자발순환(심장이 스스로 뛰기 시작)이 판독되는 상태가 회복된 환자는 전년도의 4.5%보다 0.8% 증가한 5.3%로 분석됐다.

또한 2013년 33.1%였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8.7% 증가한 41.8%였고 119상황실 등의 전화도움을 받아 시행(81.7%)한 경우가 스스로 시행(15.6%)한 경우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이는 119신고를 접수하면서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숨을 쉬는지 등을 확인하고 심장정지가 의심되면 신고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구급상황관리사의 전화 도움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심장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보통 4~6분 가량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에 국가심장정지조사한 결과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뇌손상률(4.9%)이 3배 가까이(13.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고 119신고 접수단계부터 심장정지 환자 인지율을 끌어올리고 일반인의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처 119구급과 관계자는 "주변에서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심장정지환자를 목격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평소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거나 배우지 않았다더라도 119에서 전화로 알려주는 심폐소생술을 잘 따라하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선진국만큼 되원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송 구미마을 야산 산불... 임야 1ha 소실

지난 9일 오후 청송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50분경 청송군 부남면 홍원2리 구미마을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나 관계당국에 의해 6시간 10여분만에 진화됐다.

청송군·산림청·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산불로 임야 1ha가 소실됐다. 불이 나자 청송군은 산림헬기 6대와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주민 등 300여 명을 투입했지만 날씨가 건조하

고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군 관계자는 "오전에 한 주민이 농산물 쓰레기를 태운 후 완전 소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불씨가 옮겨 불어 산불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군은 불을 낸 A(64) 씨를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 등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경북도, 안전점검 대대적으로 전개



대구시도, 해빙기 정밀안전진단

경북도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해당 시·군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안전대진단을 전개한다.

이번 안전 대진단은 국민안전처 발족 이후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해 재난,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도내에는 현재 68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으며, 그 중 작년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된 시설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며, 그 외 시설은 도와 시군 합동점검으로 4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물 분야별 안전관리 여부(가스, 소방, 건축물, 전기분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항 전반으로 운영기준 준수여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수

련활동 종합안전 매뉴얼 구비·활용 여부, 안전교육·훈련실시 여부 등이다.

이번 안전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기능보강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 교육이나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상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은숙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제대로 된 여가활동과 문화공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수련시설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가족단위 여행 시 시설안전이 확보된 우수한 도내 청소년 수련원과 유스호스텔 등을 많이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도 해빙기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도로 절개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

매년 3월은 겨우내 얼었던 땅이 따뜻한 날씨에 녹으면서 도로 절개지에 낙석이 발생하고, 급경사면의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자주 발생한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국가 안전대진단'과 병행해 오는 3월 말까지 단계별로 25개 노선 33개소 연장 16km의 도로 절개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시는 안전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안전조치 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담당자를 지정해 수시 순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13일까지 계속될 1단계 안전점검에는 도로 절개지 유지관리기관인 구·군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1차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형태로 이뤄지는 2단계 점검은 1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낙석발생·지반 침하·지하수 용출·시설물 변형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구간을 살피고 위험요인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치영 기자 박영덕 기자



도동 측백나무와 팔공산의 안녕 기원한다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보존·재난안전 기원제

대구 동구는 10일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주차장에서 을미년(乙未年) 한해 측백나무 숲을 보호하고 팔공산의 화재예방과 각종 재난방지를 염원하는 '2015년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보존 및 재난안전 기원제'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대구동부소방서 불로지역 의용소방대가 주관하며, 지역 무형문화재인 공산농요를 시작으로 기원제 행사가 진행됐다.

불로동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사회에 재난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안전문화 정

착에 기여하고자 지역의 자랑인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을 감시하기 위한 측백나무 숲 지킴이를 구성하고 그 뜻을 모아 2007년부터 매년 기원제를 지내왔다.

금년 기원제는 200여명의 지역 관계자 및 주민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측백나무 숲의 보존 및 재난안전을 기원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이 기원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구가 하나돼 열정과 자긍심으로 우리의 문화재를 가꾸고 보호해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주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 번 이 기원제를 준비하신 불로지역 의용 소방대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자유원 기자

대구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대구시는 11일부터 오는 4월24일까지 총 45일 동안 위장정리를 대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선다.

시는 11일부터 4월19일까지 이뤄지는 사실 조사를 통해 최고 및 공고를 하고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직권조치와 정리를 할 예정이다. 시는 거주지를 옮긴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 신고자,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 조사, 각종 사유로 거주불명등록 사실 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의 재등

록 등을 중점 정리 대상으로 삼았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장 및 담당을 책임자로 지정, 직원과 통·리장의 지원을 받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초·중·고의 특정학교에 배정받기 위한 취학목적, 채권·채무에 의한 도고 및 아파트 청약 등 재산관리 등)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위장전입자를 색출할 방침이다.

색출된 이들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박영덕 기자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 체험교육후 교통사고 '뚝'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실시한 안전운전 체험교육이 교통사고를 절반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받은 교육생 4만3710명의 교육 전·후 12개월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추적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2%,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71%가 감소했다.

또 안전운전 체험교육은 여러 안전지수 항목의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교통발점은 55%,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63%가 줄었다.

2009년 3월 상주시에 문을 연 교통안전교육센터는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위험회피 코스 등 13종의 실기체험시설과 3차원 영상 시뮬레이터 등을 갖췄다.

이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상황, 빙판길 급제동 상황 등 실제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내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화성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수도권 교통안전교육센터가 운영되면 교육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 교육생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 같은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우리나라보다 약 15~25년 먼저 체험교육을 도입한 일본,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 체험교육시설의 사고감소 효과를 웃도는 결과"라고 말했다. 오영태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근로자 6명 임금·상여금·퇴직금 등 7300여만원 고의 체불혐의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6명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등 7300여만원을 고의 체불한 철구조물 건설업체 사업주 이모(42)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고용부 구미지청 및 서울동부지청에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의 금품체불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전북 익산에서 지난 7일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이씨는 "사건이 신고되면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의도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회피하면서 "피해 근로자에게는 경영난으로 지급하지 못하니 회사 자산을 압류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근로감독관 신광철에 따르면 "피의자는 방만 경영으로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했다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고 체불금 품에 대한 진술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워 일반법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지난해 전국 체불임금이 1조3195억원에 달하고 매년 체불임금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감지 않고 도주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경북선관위, 조합장선거 오늘 오전 7시~오후 5시까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시·군·구의 어느 투표소든 투표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북지역의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총 271곳이며 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동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하는 곳도 있다.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명과 투표소 현황은 투표안내문에서 알 수 있으며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 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김치영 기자



대구

대구광역시일보

2015년 3월 11일

수요일 5

중구 남구
동구 수성
북구 서구
달서 달성



임병헌 남구청장은 11일 오후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구민상 수상자 초청 구정 발전간담회'에 참석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11일 오전 북구노인복지관에서 개최되는 '북구청교실 노인대학 입학식'에 참석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11일 제드워드니스센터에서 열리는 수성구청 여자태권도선수단 훈련지원 협약체결식에 참석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11일 오후 서부경찰서에서 개최하는 시니어 캠프 발대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11일 군청 상황실 열리는 '신의 물방울 사업 업무 제휴 협약식'에 참석한다.

다사축구연합회, 불우이웃 돕기 성금마련 자선축구대회

달성군 다사축구연합회는 2015년 봄을 맞이해 연합회 소속 12개팀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일 다사읍 달천리 다사체육공원 내 축구장에서 '제4회 불우이웃돕기 성금마련 자선축구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연합회 소속팀별 참가비와 기금으로 마련한 성금 100만원을 불우이웃에게 전달 해 달라며 다사읍을 통해 복지재단에 지정기탁 했다.

다사축구연합회는 관내 각급 사회직장 인들과 주민들로 구성된 개인의 건강과 상호간의 화합을 다짐 뿐만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내의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과 함께 쌀 등을 기탁해 오고 있다. 김영식 기자



'굿모닝' 구호와 함께 업무 시작

서구청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로 아침을 맞이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매일 업무 시작 전 '굿모닝' 구호와 함께 활기찬 업무를 시작한다.

서구청은 구민의 기쁨과 행복증진으로 '미소친절 서구건설'을 위해 매일 업무 전 굿모닝 건강체조, 친절 실천다짐과 힐찬 구호로 아침을 맞이하는 친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업무 시작 전 구내 방송에 맞춰 건강 체조를 시작으로 몸풀기를 한 뒤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 및 새내기 직원들의 힐찬 구호가 담긴 친절 실천 다짐 방송과 함께 직원 모두 힐찬 구호와 박수로 업무를 시작한다.

김미경 종합민원과정장은 "매일 아침을 건강하게 맞이해 구정을 찾는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자 건강 체조 및 실천 다짐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달성소방서, 지역사회 안녕·산불예방 기원 '산신제'

달성소방서는 지난 5일 비슬산에서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의 안녕과 가정의 평안은 물론 산불예방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올렸다.

이날 산신제는 봄철 산불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비슬산 등산목에서 비슬산 정상에 바라보며 축문 낭독과 함께 여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산불예방을 기원하며 제를 올려 눈길을 끌었다.

산신제 이후 비슬산 일대 산불예방캠페인 및 자연보호활동과 더불어 달성소방서 구급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더해져 더욱 알차고 뜻 깊은 행사가 됐다.



김영식 기자

8개 지역, 관광 프로그램 개발 위해 뭉쳤다

전국 최초 대구, 경북, 경남, 충북, 전남 8개 기초자치단체 관광교류 업무협약 체결

중구청과 충북 제천시, 전남 목포시, 전남 강진군,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경남 함천군 등 전국의 8개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함께 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는 최대 2박 3일 일정으로 편하게 이들 지역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될 것으로 보여, 대구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중구는 오는 13일 중구청 강당에서 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 업무협약식'을 맺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관광 프로그램 공동 개발 △주민주민 상호방문 교류 △공동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관광 프로그램 공동 개발이다.

대구 중구는 이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개 지역을 한 번에 둘러보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짧은 관광 프로그램은 주말을 이용해 하루나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중구)와 경북(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경남(함천군)지역 안에서 서로의 지역을 한 번에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된다. 긴 관광 프로그램은 1박 2일이나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와 경북지역은 물론이고 충



북(제천시)과 전남(목포시, 강진군)지역까지 둘러보는 관광 코스로 만들어 진다.

대구 중구는 이를 위해 앞으로 이들 지방자치단체들과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여행상품을 만들어 내놓을 계획이다.

2016년부터 지자체별 매년 1000만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여행사가 참여하는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이들 8개 지역의 관광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여행 안내지와 관광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이들 8개 지역 안에서 다른 지역 주민이 관광을 위해 방문할 경우 입장료나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대구 중구는 전국에서 관광자원이 우수하면서 관광활성화 의지가 높은 기초자치체에

제안해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약회'를 구성했다.

2014년 7월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최종 대구, 경북, 경남, 충북, 전남 5개 지역 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관광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관광교류협의회 초대회장(2015-2016)은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이 맡게 되며, 이후 제천시장, 목포시장, 강진군수, 청송군수, 청도군수, 고령군수, 함천군수 등이 1년씩 돌아가며 회장을 맡기로 했다.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은 13일 협약식이 끝나면 참여한 기초자치단체장과 수행원 등 40여명과 함께 청라언덕, 3.1운동길, 이상화고택, 향촌문화관 등을 걸으며 직접 대구 근대골목에 대해 해설을 할 예정이다.

대구 중구 근대골목은 2014년 한해에만 공식적인 골목투어 참가자가 19만3000명에 이른다.

또한 대구 중구 방천시장에 만들어진 김광석길도 2014년 한해에만 47만7000명이 방문했다. 한해 67만명이 다녀간 보기 드문 대도시 관광 자치구다.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은 "이번 관광교류협약을 통해 대구의 관광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간 관광 콘텐츠들의 적극적인 융합, 활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의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들 지역과 연계해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교류협의회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더 모아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종관 기자

음악창작, 남구에서 꽃핀다!

문체부 '음악창작소' 공모 선정, 국비 10억원 확보



남구청은 남구청소년창작센터가 문체부에서 진행한 음악창작소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은 지역의 젊은 음악인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대구가 최종 선정됐다.

앞으로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은 대구시가 주관하고 남구청이 장소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향후 5년간 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좋은 성과를 거둔 모범사례로 창조적 문화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음악창작소가 구축될 남구청소년창작센터는 음악창작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은 물론 신진 뮤지션 양성, 공연기회 제공, 네트

워킹, 뮤직 비즈니스 등의 지원을 통해 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과 다양하고 실력적인 음악 창작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남구청소년창작센터는 995㎡(약 30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디지털 음악 작업을 위한 마스터링룸과 레코딩룸, 음악체험실, 음악 관련 세미나와 워크숍, 컨설팅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실 등이 조성된다.

특히 △뮤직세미나 등 뮤직스쿨을 개최해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고 △뮤지컬과 게임 등 장르 간 협업을 통해 수준 높은 음악 콘텐츠를 생산하며 △공개 오디션을 통한 인력 개발을 통해 영향력 있는 대중 음악가를 발굴·육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악창작소를 통해 생산된 콘텐츠를 뮤지컬과 게임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적인 수익모델을 만들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음악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는 음악 창작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음악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져 대구의 음악 산업 발달 또한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남구청소년창작센터의 음악창작소는 음악 관련 인재 발굴과 기획, 제작, 홍보, 마케팅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지역 음악 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남구가 대구는 물론 전국의 대표적인 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우현 기자



노인대학 개강했어요~ 캠퍼스 라이프 시작!

북구청 노인대학 11-19일 사이 일제히 입학식 개최 강의 시작

북구청에서 위탁해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부설 노인대학이 이달 중 일제히 입학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한다.

북구노인대학은 노인들이 교육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4개 노인복지관에서 동시에 개강해 4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과목별 주당 1-2회 수업을 진행한다.

먼저 침산동에 위치한 북구노인복지관 부설 '북구청교실'은 11일 대강당에서 입학식을 열고 강의를 시작한다.

입학식에는 배광식 북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노인회복지회회장, 노인대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개식과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등의 순으로 개최된다.

북구청교실에는 가요교실과 실버요가, 컴퓨터, 서예 등 30개 과목에 1200여 명이 등록했으며 전문강사와 자원봉사자의 지도로 수업이 진행된다.

관음동에 소재한 강북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강북청춘대학'은 오는 13일 대강당에서 입학식을 갖고 강의를 시작하며, 개설과목은 고전무용과 사진, 실용영어, 역학 등 31개 과목이고 1500여 명이 등록을 마치고 수업에 참여한다.

북현동에 위치한 '대불어르신 힐찬대학'은 오는 18일 입학식을 개최한다.

수지침과 풍수지리, 단전호흡, 민요교실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과목을 포함해 24개 과목이 개설됐으며 2000여 명이 참가해 가장 많은 노인들이 등록을 마쳤다. 송종관 기자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

달성군은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긴급복지 지원 사후심의 및 2015년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와 읍면복지협의회체 조례개정 계획 등을 주제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중홍보와 달성군 복지기동반의 활동으로 더욱 늘어



난 긴급복지지원 수혜자에 대한 적정성 심의와 읍면복지협의회 구성에 관한 복지협의회체 조례개정 계획, 지역사회복지 연차별계획을 주제로 열린 토의와 의견수렴으로 진행됐다. 김영식 기자

북구청, 구암동 숲체험공원 조성 4월쯤 착공, 9월 개방 예정

북구청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2015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를 확보한 구암동 숲체험공원 조성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구암동 산11번지(국우성당 뒷편) 일원 국유지 6695㎡에 숲 체험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 인근의 윗골등산과 운암지수변공원을 연계하는 숲체험 벨트를 형성

함으로써 어린이와 주민들이 힐링과 체험을 위한 생태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북구청에서는 이 곳에 국비와 구비 등 5억 원을 투입해 잣나무와 편백나무, 야생화 등 군락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체력단련시설과 산책로, 데크로드, 정자, 벤치 등 심터를 설치해 숲체험공원으로 재탄생 시킨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구암동 숲체험공원이 들어서면 윗골등산과 망일봉, 함지산, 운암지수변공원으로 이어지는 숲공원 벨트가 형성돼 치유와 휴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자연학습체험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관 기자

경북

대구광역시

2015년 3월 11일

수요일 6

경주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추진

경주소방서는 2015년 범도민적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 지난 한해 경북소방본부는 전문교육 595명, 체험교육 8만4431명을 대상으로 심폐소

생술 교육을 실시했으나 실습교육 보다는 강의식 교육이 진행됨과 동시에 전문강사의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는 자체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전문교육 3000명, 체험교육 9만명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범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계층별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확대, 심폐소생술 교육강사 확충, 교육수료증 발급, 심폐소생술 서포터즈 운영 등이다.



윤용찬 기자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이강덕 포항시장은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자치행정국과 농업기술센터의 당면 주요업무 보고회를 주재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11일 군청지하 통합방위상황실에서 2015 독수리연습 실시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한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11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경북관광공사 MOU(양해각서)체결식에 참석한다.

울진군, 오지마을 행복 의료서비스 출동

울진군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주관하는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울진, 영덕, 영양 농어촌생활권이 선정돼 인증서를 받았다.

농어촌생활권에서는 오지마을의 교통 접근 어려움과 고령화로 인한 이동 불편 주민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의 선도사업에 3개시군 공동으로 "낙동정맥 오지마을 의료서비스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관 자치단체는 영양군, 참여 자치단체는 울진군, 영덕군으로 지역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을 확대하게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 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리며 오지지역 주민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통한 국민행복 증진과 평생건강도시 울진건설 추진에 크게 기여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부의 의료인력 공급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강구일번지 공인중개사 매물접수현영
영덕군, 강구면, 영해면 등
동해안 모든 지역 **땅** 문의하세요
최선을 다해 선별해 찾아 드리겠습니다.
TEL 054)734-8989 / 010-6767-9997
대표 황성학

영덕대게축제, 문화관광축제 도약 발판 마련

5년 연속 경북도 최우수축제 선정

오는 4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강구항을 중심으로 영덕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영덕대게축제가 경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영덕대게축제는 5년 연속 경북도를 대표하는 최우수축제로 선정돼 이례는 문화관광축제로 도약을 일궈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영덕대게축제는 문화관광축제 도약을 위해 축제 전문가인 신현식 상지대겸임교수를 총감독으로 임명, 문화관광형 축제로의 콘텐츠 개발 등 축제 기획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니들이 게맛을 알아"로 인지도가 높은 꽃보다 할배 구아형 '신구'를 축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축제 홍보물, 주제가, 주제댄스, 퀴즈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영덕대게축제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홍보방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영덕군은 "영덕대게축제는 경북도에서 5년에 걸쳐 최우수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성장한 축제가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 준비된 축제로서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빛나는 결과를 기대한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춘국)는 "민간주도로 운영 되고 있는 영덕대게축제는

영덕대게라는 특산물을 소재로 한 산업형 축제이지만, 단순히 대게를 판매하고 먹는 축제가 아닌 대게를 축제 콘텐츠로 즐길 수 있도록 꾸준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하며 "영덕군을 찾아온 축제 방문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관리 향상을 매년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성장하고 있는 축제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처럼 총감독 체제 도입을 통해 민관이 상호 협력해 축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제18회 영덕대게축제가 영덕군과 경북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을 선도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건 기자



KTX포항역사 개통준비 현장회의

KTX포항역사 현장서 개통준비 추진상황 점검·의견 공유

포항시가 10일 KTX포항역사에서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TX역사 개통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도시건설사업소장의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13개 부서별 추진상황을 현장확인하며 꼼꼼히 점검했으며, KTX 개통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 역사권 개발, 교통대책 등

에 대한 의견공유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 시장은 회의에 앞서 210분 좌석버스 타고 양학동에서 달천오거리, KTX 포항역까지 둘러보면서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장 토론회에서는 KTX 개통에 따른 관광안내소 운영, 연계상품 개발, 전통시장 활성화, 역사주변 기반시설 확충·정비, 역사권 개발, 교통종합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원우 기자

포항남부, 비닐하우스 주조제 시행

포항남부경찰서는 농산물 도난 등 각종 신고 시 신속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특산물(부추·시금치)을 재배하는 연일·청림·동해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농로명 주소제'를 시행해 왔다.

현재 농로명 주소 부여로 체계화된 위치 정보를 재정비하기 위해 낡고 훼손된 기존의 스티커를 모두 제거했으며, 비와 눈에도 낡지 않

는 재질(페트지)에 밤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사지를 사용, 새로운 농로명 주소 안내판으로 교체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농로명 안내판을 교체하고 확대하는 등 '농로명 주소제'를 재정비하고, 이를 112 위치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함으로써 농민의 생계수단인 특산물 도난 예방 및 신고 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 농가 치안 확립으로, "농민의 땀방울을 소중히 여겨 농작물 절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우 기자

영덕군, 치매 예방 위한 '행복한 동행'

'화이팅! 아름다운 뇌 인생' 치매 센터 개강

영덕군은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2015년 '화이팅! 아름다운 뇌 인생' 우리마을 예쁜 치매센터를 올해 9개소(250명)로 확대 운영 한다.

'화이팅! 아름다운 뇌 인생'은 2014년에도 7개소 경로당을 운영, 17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참여자들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으며 있었으며 영덕군은 이같은 호응에 힘입어 금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 하기로 했다.

치매센터는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르신

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뇌건강진진 프로그램으로, 9일 영해면 괴시1리 치매센터(경로당)를 시작으로 9개소의 경로당에 오는 10월까지 주 2회씩 총 50회에 걸쳐 경로당을 방문, 미술, 음악, 감각, 인지, 신체단련 등 5개 영역을 균형 있게 배분한 치매예방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괴시1리 경로당 치매센터 참여자 황모(여 79) 어르신은 함박 웃음으로 치매센터 운영팀들을 반기며 "작년에 치매센터가 너무 즐겁고 좋아서 올해도 정말 손꼽아 기다렸다. 경로당 친구들과 같이한 치매예방체조와 노래, 여러 가지 만들기가 너무 재미있었고 올해도 선생님들을 다시 만나니 너무 행복하고 고맙다"며 올해수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건 기자



경주 보문골프클럽, 어르신 저렴하게 골프 즐기세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할매·할배의 날' 지정

경북도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경주 보문골프클럽에서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지정해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전문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경상북도에서 조례로 지정한 '할매·할배의 날' 조기 정착에 적극 부응 하기로 추진하게 됐다.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지정해 1팀 4인 기준으로 만65세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2인까지 그린피 5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윤용찬 기자

경주시

국내 최대의 벚꽃 축제
제24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

2015. 4. 4 (토) 08:00
경주세계문화엑스포광장 앞

점수마감 **2015. 3. 15**
(12,000명 선착순)

주최: 경주시·요미우리신문 서부본사
주관: 경주시체육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한국관광공사(동경·후포우가 지사), 경주시의회,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경상북도관광공사, 한국원지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NH농협, 대구은행

문의: 경주벚꽃마라톤 사무국 02-514-6133
접수: 인터넷(www.cherrymarathon.com)

HICO
CYBERIA
Korea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경주화백컨벤션센터
Tel. 054-777-3556

국제회의도시 경주!

2015년 3월 2일 개관

풀코스(42.195km)

하프코스(21.0975km)

10km단속코스

5km건강달리기

경북

대구광역시

2015년 3월 11일

수요일 7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최영조 경산시장 은 11일 오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열리는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이사회'에 참석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11일 오후 완산동 우수 저류시설과 망정동 아파트 건설 현장 등 방문,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성주,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심의

성주군은 9일 오후 문화예술회관 2층 종합교육장에서 권영길 부군수(위원장) 주재로 '2015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 주요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리말공부방 운영, 방문교육사업, 특화사업, 다문화가족상담, 초등학생학습지원, 다문화가족 국제특송지원, 노령장자 교실 사업 등을 심의하고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토론을 가졌다.

특히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사업은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수문면소재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가 직접 면사무소에 방문, 교육을 실시하며 특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워크숍, 나눔봉사단, 국가별차조모임, 서포터즈 운영 등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은 281가구이며 자녀는 336명 정도가 된다.

올해에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올바른 지식과 소양을 함양해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해 나갈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권영길 성주부군수는 참석한 위원들에게 다문화 가족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두상 기자

경산경찰, 시니어클럽 교통안전교육 실시

경산경찰서는 지난 9일 경산시 중산동 시니어클럽 대강당에서 '시니어클럽 교통안전지도사업단'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시니어클럽 교통안전지도사업단은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하는 어르신들이다. 이날 교통안전교육은 안전깃발 교통 신호

봉을 활용한 수신호 동작을 동영상 및 경찰관이 직접 시범 등을 통해 어르신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시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어르신 교통사고 사례 및 안전수칙을 설명 하며 아이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항상 주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경운 기자



경산시정책자문위 재구성 경산 미래 책임진다

경산시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위원회 운영계획·운영방안 토론

경산시는 지난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6기 경산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위촉장 전달과 2015 위원회 운영계획 및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6기 경산시정책자문위원회는 4개 분과, 23명으로 구성돼 주로 시정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경산시장기발전계획의 세부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영남대학교 윤대식 교수가, 부위원장은 대경대 이선영 교수가 선출됐다.

신경운 기자

특히 교육도시에 걸맞게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산시 소재 12개 대학의 교수들로 구성돼 그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시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정책제안뿐만 아니라 시정의 주요 프로젝트와 연계해 자문역할을 강화하고, 분과위원회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올 한해는 경산시의 10년, 30년 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한 해로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산시정 발전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 정책자문위원회는 2005년에 처음 구성됐으며, 제안된 정책은 관련부서에서 시행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한 후 시정에 반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는 총 9건의 정책이 제안돼 검토가 이뤄졌다.

청도군, 농림축산식품사업 농정 심의회

2016년 예산신청 32건 362억 의결



청도군은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정 심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민간단체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 안건으로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10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및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 12억원, 임산물 유통 구조개선 및 산림작물 생산기

반 조성사업 55억원, 풍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3억원, 유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3억원, 청도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20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5억원, 운문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9억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및 농촌생활환경정비 12억원, 친환경분야 61억원, 과수고 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15억원,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사업 97억원으로 2016년 예산신청 32건에 362억원에 대한 안건을 심도있게 의결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 비율을 잘 조정해 꼭 필요한 사업은 지원율을 높이고, 유사한 사업은 중복지원을 자제, 지원에만 의존하는 사례를 줄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군민 모두가 잘 사는 부자 청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용규 기자

영천, 성공적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 마무리

앞선 귀농·귀촌교육, 지원체계 마련

영천시시는 최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성의 증가와 맞물려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9일까지 9일간 40시간의 일정으로 귀농·귀촌영농정착교육을 진행, 125명의 수료생 배출을 축하하는 수료식을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졌다.

영천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한 발 앞서 2008년부터 귀농교육을 실시, 올해로 귀농교육 7기생을 배출했고, 귀농인에게 필요한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마련, 성공적인 농촌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교육은 귀농지원사업 안내, 농업기관 사업소개, 성공 귀농을 위한 경영전략, 영농기초 이론과 실습, 선도농가 현장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지역귀농인

과의 만남을 통해 정보교류의 장이 됐다.

이날 수료생 석동춘(60·고령면)씨는 "귀농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지원정책 등을 알 수 있어 앞선 귀농 준비가 됐으며, 지역에서 귀농인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화합으로 성공 귀농을 이뤄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료 소감을 밝혔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농업·농촌의 일자리는 새로운 블루오션이며, 귀농인의 다양한 경험과 경력은 농업 창업의 값진 경쟁력이 되리라 기대하며, 앞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단계별·맞춤형 귀농정착사업 및 교육을 확대,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천시는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조성사업' 등 귀농관련 핵심사업을 유치, 남부권 귀농·귀촌 거점 지역으로서의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일만 기자



청도군, 우리마을 치매검진사 양성 교육

치매조기발견 중요성 홍보

청도군은 지난 9일 청도군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자, 치매담당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사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청도군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31%로서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청도군보건소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모집, 치매검진사로 양성

해 치매선별검사, 치매홍보활동 등 각종 보건사업에 치매검진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치매검진사 양성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치매조기발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치매환자발견 및 관리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용규 기자



칠곡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칠곡군은 오는 31일까지 개별주택(13,627호)과 공동주택(23,392호)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지역 내 단독가구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군 세무과와 인터넷 홈페이지(www.chilgok.go.kr)

또는 읍면 재부·총무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aao.kab.go.kr) 열람 및 콜센터(1661-782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군 세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팩스를 통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사항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안성민 기자

2009년 경상북도 최우수브랜드 선정
2010년 청와대 납품
2014년 경상북도 6대 우수브랜드 쌀 선정

고령의 명품쌀 고령옥미

- 고령옥미는 쌀 한 톨, 한 톨에 농업인의 정성과 농촌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 고령옥미는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삼광벼로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철저한 관리를 하였습니다.
- 고령옥미는 깨끗한 토양, 맑은 물과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재배한 보배로운 쌀입니다.

구입처
고령몰: www.grmall.co.kr
고령 R P C : 054)955-9512
고령군농업기술센터 : 054)950-7311

경북

대구광역시

2015년 3월 11일

수요일 8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영양



장옥현 영주시장은 11일 오후 장수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에서 개최하는 시민과 소통·만남의 날 운영에 참석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11일 오전 의회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1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개최식에 참석한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11일 오전 영양군청 전경에서 개최되는 '2015년 봄철 산불방지 발대식'에 참석한다.



영주 원당로변 명품 거리 일변지로 변신

영주시는 제53회 경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시미관과 시민의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변 점포 앞 무단적치물과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유, 상행위를 하고 있는 청과물관매상 등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지난 6일 1차로 원당로변 청과물관매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말끔하게 정비했다.

이번 집행은 지난 1월 말까지 정비대상 업소 실태조사에 의해 2월말까지 자진정비 유도차원의 정중환 안내문, 계고문 전달과, 3월초 대집행 계고장 발송 등 사전절차 이행 후 미정비 업소는 전격적으로 정비조치 하게 됐으며, 4월부터는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일단속 활동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후에도 동일행위를 반복하는 상습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강제조치 전에 대상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해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에 적극 동참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영양, 퇴비 부숙도 측정 서비스 실시

영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환경관리실은 이달부터 5월까지 미부숙 퇴비사용으로 인한 여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비 부숙도 측정 서비스를 추진한다.

과거처럼 중금속이나 페슬러지가 함유된 불량퇴비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새로이 고개를 드는 불량퇴비는 바로 부숙이 되지 않은 미부숙 퇴비이다. 요즘 날이 풀리면서 논과 밭, 과

수원의 토양개량을 위해 살포하는 퇴비는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토양에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부숙 퇴비를 사용할 경우 유해가스 및 악취를 발생시켜 작물의 호흡과 증산을 방해, 직접적인 생육 저하, 영양 부족으로 이어지고 각종 병원균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 작물 재배가 더 어려워진다. 권윤동 기자



영양, 지역 행복 선도 앞장선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영양군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모한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2건이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생활권 선도사업은 신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의 확산과 촉진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생활권을 구성한 지자체에서 NIMBY해소, 교육·의료질 개선, 생활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등 주민행복 증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 시·군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영양군이 주관하고 인접 지자체 영덕, 울진군이 함께 참여한 '낙동정맥 오지마을 의료서비스 구축사업'이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2017년까지 전체사업비의 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영양·영덕·울진 생활권의 '낙동정맥 오지마을 의료서비스 구축사업'은 대중교통 접근이 제약된 오지마을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정기적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을 실시, 주민 삶의 질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안동시가 주관하고 영양, 청송, 의성, 예천군이 참여하는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관광일자리 창출사업'도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안동중추도시생활권(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의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관광일자리 창출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통·번역 전문인력으로 양성, 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통역 및 해설 인력의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 개선과 생활권의 공동발전에 이바지 할 전망이다.

영양군은 10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선정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최종 사업 승인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권윤동 기자

문경, 氣운찬 중풍예방교실 수료

문경시는 2015년 상반기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인 '氣운찬 중풍예방교실'을 관내 마을회관 3개소(점촌4동 주평마을회관, 가은읍 왕릉1리마을회관, 마성면 외어2리마을회관) 100여 명을 대상으로 10일 수료식행사를 가졌다.

상반기 중풍예방교실은 지난 1월 20일부터 주 2회(화, 목) 12주 과정으로 운영, 중풍예방 개념, 응급처치법, 한방진료 및 건강상담을 병행했고 식이요법을 통한 중풍 관련 식생활 영양교육, 혈관이 좋아하는 한방차만들기, 기공강사의 체계적인 중풍 예방 기공 동작, 중풍혈자리압 및 맛사지법 등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여 교육 참여자에게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제공했다.

권상원 문경시보건소장은 "다양한 한의약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이 실질적인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실효성 있는 한의약프로그램을 마련, 다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가 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오재영 기자

안동, 주민주도 관광시대 연다

9.4대1 경쟁률 뚫고 관광두레사업 선정

안동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5 관광두레사업에 전국 55개 지자체에서 94개 팀이 신청한 가운데 1, 2차 서류심사와 3차 두레PD의 발표평가를 통해 9.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11개 지자체)됐다.

문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진단 및 지역특화 관광사업모델 개발, 두레PD 교육, 홍보 마케팅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안동시 관광두레사업에 맡을 관광두레PD는 전미경 크리에이티브 대표가 선정돼, 지역관광에 대한 진단과 지역별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업계획 수립, 관광두레기업 창업 멘토링,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세부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관광두레사업은 기존의 관광개발 방식에서 벗어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사업을 발굴·운영해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는 주민주도 관광사업이다.

또한 하향식 관광개발 사업이 시설 조성에 치중, 사후 운영 부실에 따른 주민해탈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지역 관광개발 모델을 제안한 지역주민이 주체적, 자발적, 협력적으로 참여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관광의 주도와 효과가 참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도입된 지역주민 주도형 지역관광 공동체 사업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관광두레사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산업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문경 산양면 건조기간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문경시 산양면은 지난 9일 산양면 일원에서 주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산불예방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

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문경시에 건조주의보 발령 및 농가 영농준비시기가 도래 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 고취 및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체호식 산양면장, 김인호 문경시의회의원, 권영하 문경시의회의원, 산양면 이장자치회 및 직원들 70여명이 참석했다. 오재영 기자



영주,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이제 그만!

소각 산불 방지 총력 대응

영주시는 매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지난해 전체 산불발생건수의 88%정도를 차지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소각산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소각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각산불 원천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소각금지 기간' 설정 운영으로 산과 가까운 100미터 이내에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농산촌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불법소각을 하지 않겠다"는 '동참서약서'를 받아 주민 자율적으로 무단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소각산불 취약계층인 고령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을 책임담당자로 지정,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습관적으로 해오고 있는 논·밭두렁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각종

행사 시 논·밭두렁 소각금지 전단지들을 주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소각금지 포스터도 주요지점에 부착, 산불예방 계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좀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응책들도 눈길을 끈다. 산불진화헬기 1대를 임차해 매일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시간대에 산불계도비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도 비행 시 엠프방송을 통해 산림연접 소각행위 금지를 홍보하고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소각행위 발견 시 바로 물을 살포하고 있다.

또한 올해 산불조심기간동안 무단소각행위 3명에 대해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으며, 산과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적발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심원)는 논두렁·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농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소각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전상기 기자

자원의 순수가치

문경시 MUNGYONG-SI

공로법 스포츠 · 관광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일류문경

경상북도 문경시 영로로 225(문경2동) 054-552-3210

Nature's Wonder

자원의 첫 번째 풍경

문경

자원은 풍경이 되고 마음은 풍요가 되는 그곳!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1위

눈과 신과 하늘이 만나는 곳, 맑은 계곡과 다슬미가 흥겹게 연주하는 문경

시간의 순적을 뒤집어 전통의 숨결 그 속으로 떠나는 여행..

경북

대구광역시

2015년 3월 11일

수요일 9

의성군, 봄맞이 농기계 수리 해드려요

의성군은 봄철 영농을 준비하는 농업인들이 불편없이 농기계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5일-20일까지 봄철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순회수리봉사반은 3개 농기계 제조업체(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기업)로 구성되며, 6명의 전문수리기사와 3대의 차량으로 봄 영농철에 사용하는 농기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활동을 실시한다.

역을 중심으로 수리활동을 실시한다.

수리대상 농기계를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등 농기계와 부속작업기를 포함하며, 순회수리봉사 기간 동안 농기계 점검 및 수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이 소요될 경우 부품대금은 실제로 현장에서 지불하면 된다.

박재성 기자



구미 김천
상주 의성
군위 청송

구미시, 화학물질 누출사고 신속히 대응한다

사고대응 유관기관, 관내 대학교 관련학과 교수,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50명 참석



구미시는 지난 9일 오후 4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에 따른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구미시와 경북도청, 구미소방서, 구미경찰서, 구미 화학재단 합동방재센터, 119특수구조단, 구미시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고대응 유관기관과 관내 대학교 관련학과 교수,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시스템은 구미공단 맞춤형 화학사고 종합대응시스템으로 불산사

고 이후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구미시에서 2014년 1월부터 12월 29까지 사업비 1억3500만원을 투입,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에는 업체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

황, 사고대응매뉴얼, 취급시설 배치도 등 사고대응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신고접수, 상황전파, 대응정보 제공 등 각 대응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로 조기에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초동 대응시

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한편 구미시는 불산사고 이후 안전도시 구미 조성을 위해 안전재난과와 환경안전과를 신설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범시민 안전 실천 결의대회 개최, 화학물질 전문가 채용, 방재장비 확충,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구미 유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화학사고에 한층 더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보고회를 직접 주재한 남유진 시장은 "화학사고 발생시 대응시스템을 활용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대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평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기환 기자



남유진 구미시장은 10일 오후 경운대학교 벽강아트센터에서 열린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 개강식에 참석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11일 상주관광호텔에서 '2015 의식업중앙회상주시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김영남 군위군수는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농촌활력을 위한 교육에 참석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11일 구봉공원에서 실시되는 2015봄맞이 일제 대청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의성 고운사

화엄승가 대학원 개원식

지난 9일 오전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개원식을 했다. 1부는 운수암 앞에서 화엄승가대학원현판식을 제막하고, 제2부 개원식은 화엄문화체험관에서 했다.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은 운수암 강원건물을 사용했다. 고운사 강원은 일제강점기까지 교육을 했는데 한국전쟁당시에 소실됐다고 한다. 운수암 강원은 2009년 기공식을 했고 연면적 203㎡에 10억원(국비:4억7500만원, 도비1억4250만원, 군비3억3250만원, 자부담 5000만원)을 들여 2010년에 완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수 의성군수, 신원호 의회의장, 호성 고운사 주지스님 등 관련 인사 및 내빈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개원식에서 축사를 한 의성군수는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개원을 축하하고, 개원하기 위해 노력하신 호성스님 및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박재성 기자



'농업 중심도시 상주건설의 주역' 새출발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대학 입학식 개최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10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업의 중심도시 상주건설의 주역을 양성하고, 안정적인 농업소득과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2015학년도 제9기 상주농업대학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핵과류학과 신입생 45명과 이정백 시장 및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출발에 대한 축하와 농업대학교육을 통해 지역 선도농업인으로 거듭나는 자

리가 됐다. 올해 핵과류학과 개설로 품목 전문 기술교육 및 선진농장 현장견학, 실습·토론 등 특성화된 교육 방법으로 교육생에게 소득창출을 위한 충분한 동기부여를 유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선도농업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과 전문 농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장인정신을 키우기 위한 의식교육도 교과과정에 편성됐다. 교육은 11월 3일까지 총 27회 112시간으로 진행되며, 강사진은 농업기술센터 자체 농촌지도사를 비롯, 대학교수, 사회 저명인사 및 유명강사를 초빙,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상주농업대학은 2007년 1기 55명이 졸업한 후 지난해 8기까지 4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지역의 선도농업인으로 상주 농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상주농업대학장인 이정백 시장은 "농업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들이 농업을 통해 각자가 소망하는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대학 교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수료한 선배들은 명실상부한 지역의 선도농업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 신입생 여러분들도 선배들의 뒤를 이어 상주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재영 기자

군위군, 개별주택 가격 열람·의견접수

군위군은 개별주택 9088호에 대해 11월부터 31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군은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토지특성 11개 항목과 건물특성 9개 항목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반인들의 열람방법은 군위군 인터넷 홈페이지나,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제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유근 기자

구미, 화물공영차고지 타당성·계획 수립 검토

화물협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 계획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개최

구미시는 지난 9일 오후 5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화물협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공영차고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용역은 원활한 화물운송 및 화물자동차 주차장시설을 확립, 이면도로 및 주택가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시키고 시민불편 해소 등 화물운송 사업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의 선행 사업으로 2014년 6월부터 2월말까지 실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용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미 화물자동차 현황 및 장래전망 예측, 화물공영차



고지 설치 타당성 및 선정 입지 예상후보지에 대한 개별적 현장조사 및 용역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남유진 시장은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지를 검토·확정, 도 자율편성사업 신청, 실시계획용역,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대비, 국비 확보 후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기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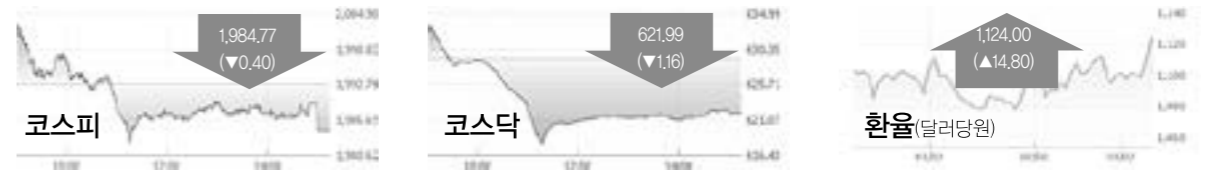
"경북농업의 얼굴"
"경북의 중심"
"부자농촌의 열쇠"

백악기 시대 거대한 공룡공원, 공룡발자국화석지 의상대사와, 고운 최치원 선생의 얼이 서린 천년 고찰, 고운사 선조들의 삶의 흔적을 고스라리 간직한 사촌마을 숲속의 산소탱크, 금북옥산자연휴양림 경북 3대 평야, 안계평야에서 나는 황토쌀 믿고 먹는 브랜드, 마늘포크·마늘소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

이 모든 것을 품에 안은 곳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

의성군입니다.
www.usc.go.kr



세계물포럼지원특위, 홍보 발로 뚫는다



물포럼 계기로 대구·부산 상생협력 계기 홍보 실시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지원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해외 홍보를 다녀온 이후 부산을 시발점으로 서울, 광주, 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 대한 홍보투어를 실시하기로 했다. 물포럼특위 박상태위원장 등 5명은 우선 부산시의회를 방문, 박재본 복지환경위원장 등 부산시의원 8명을 만나 다음달 12일~17일(6일간) 대구엑스코와 부산 화백 센터에서 개최되는 물포럼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 의회에서는 “물포럼 행사기간에 꼭 대구를 방문, 행사에 참여해 전시회 등을 둘러볼 것”이라며 “부산에서도 물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대구의 물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기대감을 표시했으며, 박상태위원장은 “물포럼 개최를 계기로 대구와 부산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상태위원장은 “세계물포럼의 홍보를 위

해 부산을 필두로 전국을 누비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부산시의회 방문은 물포럼 홍보와 더불어 양 도시 간 우호를 다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물포럼특위에서는 부산에 이어 다음 주에는 광주와 인천을 방문하고 행사시작전까지 타 시·도 순회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지원특별위원회는 2014년 8월 27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활동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7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박영덕 기자

조달청, 여성경제인들과 간담회 열려

여성기업 발전 생태계 조성 위한 지원방안 청취

조달청은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 대표자들을 초청, 여성기업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들이 경영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여성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토대로 건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진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국가계약법령 상 수의계약 대상에 여성기업을 추가하고, 다수공급자계약 때 여성기업에 대한 납품실적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일부 공공기관이 자체 구매를 하면서 입찰공고에 특정 제품을 지정하는 등 불공정한 공고사례가 있고, 일부업체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값싼 수입제품을 끼워팔기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이 이러한 부당·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여성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특히 불공정 조달행위 감시·조사를 위해 조달청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그동안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조달청 사업실적에서 여성기업 구매(물품·용역) 비중이 ‘10년 6.0%(1조495억원)에서 ‘14년에는 8.5%(1조9052억원)로 높아졌다”면서 “우리경제에서 여성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조달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준관 기자

대구국제섬유박람회 오늘 개막

제14회 대구국제섬유박람회가 1113일 새출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대구국제섬유박람회는 국내외 340개 업체가 참가해 고기능·첨단 신소재를 선보인다. 특히 ‘모든 산업에 섬유를 입히자’라는 표어에 걸맞게 산업용 융합섬유 전시관이 대폭 확대되는 등 특화소재 전문 전시가 강화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코오롱패션머티리얼 △효성 △휴비스 △성안합성 △조양모방 △한신모방 △킵텍스 등이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일본의 다케사다 △터키 오스만 베이 △프랑스 제라르다델&파블로 △미국 Scott Sports △독일 퍼퍼먼스 데이 등 약 20여개국의 해외 바이어들을 유치했다. 자세한 참가안내는 홈페이지(www.preview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준관 기자

출자·출연기관

대구시 경영평가, 확 바뀐다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객관적 경영평가 심의 위한 체계 마련

대구시는 1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9월 25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경제계, 언론계, 학계, 노동계 등 민·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경영평가·경영진단,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요구, 복리후생·보수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대구시 하영숙 평가담당관은 “이번 위원회 발족 및 회의 개최는 기관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 개최에 이어 경영평가 위탁기관이 선정되고 바로 평가지표를 확정, 오는 6월까지 경영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송준관 기자

조달청, 상용SW 제값주기 ‘현장 간담회’ 열려

김상규 조달청장, 상용SW 업체 대표 등 기업대표와 현안 의견수렴

김상규 조달청장은 10일 경기도 판교 (주)한글과컴퓨터 본사에서 상용SW 업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신성장산업의 핵심인 SW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달청에서 추진 중인 상용SW 구매 확대, 분리발주 활성화 등 SW 제값주기 지원정책에 대한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용SW 전문기업 대표들은 공공부문의 선도적으로 불합리한 구매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SW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했다. 이날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을 통한 SW산업 발전을 위해 신기술서비스국을 신설하고 SW 제값주기 정책의 실현에 조달청의 업무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분리발주 활성화와 불공정한 계약관계 개선을 통해 우수한 SW업체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준관 기자



경북도, 미래 먹거리 핵심사업 발굴 창조경제 실현 관계관 회의

경북도는 10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미래 먹거리 핵심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창조경제 실현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2015년 신규 확보한 국가지원사업이나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대형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통과를 위해 시·군과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또 도는 경북지역의 자동차와 IT, 소재 부품 중심의 산업이 잘 형성된 기반에 융복합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해 정부의 각종 R&D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 고도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보급 확산, 융합형 신사업 발굴로 7대 상생협력 신사업 추진,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 육성에 컨설팅과 원스톱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김치영 기자

스포츠닥터스·호산대학교 원원, 산학협력 협약



국제연합(UN) DPI NGO인 사단법인 스포츠닥터스가 경산 호산대학교와 9일 산학협력

협약을 했다. 스포츠닥터스는 의료, 스포츠, 문화예술, 교육, 환경 분야 나눔활동에 호산대 학생들을 우선 참여시켜 봉사활동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호산대는 의료봉사를 통해 글로벌 봉사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스포츠닥터스와 누가의료기와 함께하는 4월 중국 의료봉사에는 호산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학생과 교수들이 참가한다. 특히 응급처치&심폐소생술(BLS) 인증기관인 호산대의 장점을 살려 현지인들을 교육하고 교육 참여자에게는 BLS 수료증을 수여한다. 신경윤 기자

중진공 대구본부, 올해 협동화자금 신청·접수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협동화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협동화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성장동력 창출을 유도하는 신성장기반자금의 한 종류다. 3개 이상 중소기업이 규합해 공동으로 집단화, 공동화, 협업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입지 문제 해결, 투자비 절감, 원가절감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제의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다. 송준관 기자

일정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3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해 사업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주체) 선정과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해 중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자금은 협동화사업에 소요되는 시설투자 자금과 원부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으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70억원(운전자금 5억원)으로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 후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용자 지원한다.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해당 사업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75%경감, 재산세는 3년간 50%경감되는 세제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송준관 기자

대구시, 지역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담당자 직무교육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중소기업제품 지원을 위해 오는 11일 엑스코 314호에서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계약·구매 업무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으로 기업의 판로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지역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대구시 지침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제도 △나라장터를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된다. 송준관 기자

대구 경북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수경지역 ECO 자원연계 통한 주민 HI-UP 프로젝트

대구시는 경산시와 함께 계획한 ‘수경지역 ECO 자원연계를 통한 주민 HI-UP 프로젝트’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수경지역 ECO 자원 연계를 통한 주민 HI-UP 프로젝트’는 대구시 수성구와 경북도 경산시의 교육, 문화, 한방의료 등 도(都)-농(農) 간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과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한방 건강검진대회 행사 △찾아가는 한방의료봉사 △현장맞춤형 직업 전문 교육 △조수공원 등 상설 공영장 조성 △농가소득 창출용 직관장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와 경산시는 동생활권 내 주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주민 수요가 높은 건강검진, 복지,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양 도시 주민행복 증진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관 기자

경북농기원 ‘농촌사랑 소비자대학’ 교육생 모집

농산물 정보 안전한 먹거리 제공,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경북도농업기술원은 ‘2015년 농촌사랑 소비자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생 모집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모집인원은 농업·농촌에 관심이 있는 도시 소비자 90명으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경북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gba.g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또한 교육은 다음달 2일부터 10월22일까지

10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농산물 정보 제공, 전원생활 이해하기, 귀농·귀촌 준비 등 이론 교육을 비롯해 포도 따기·두부 만들기·장아찌 만들기 등 전통음식체험, 농촌체험관광, 농산물가공사업장과 현지 우수농장을 견학하게 된다. 특히 2005년부터 매년 실시돼 온 농촌사랑 소비자대학은 현재까지 74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 수료생을 중심으로 ‘농촌사랑소비자연대’를 결성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농산물 직거래, 농촌봉사활동 등 농촌사랑 서포터즈로서의 농촌지킴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김치영 기자

경북교육청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 지원을 통한 공·사립 양극화 해소

경북도교육청은 2015학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해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 및 운영비로 152억여원을 지원한다.

이는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해 공·사립유치원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유치원비 안정화를 실현해 궁극적으로는 학부모의 유아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내용으로는 정규 교원에게 교직수당 및 인건비보조로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학급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에게는 학급담임수당 월 11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년 대비 납입금을 동결한 유치원에 대해 학급당 월 2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유치원비를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은 재정지원에 따른 점검을 강화해 사립유치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교직수당 및 인건비보조 차원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은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원비를 받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각각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관계관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으로 열악한 유치원의 정상 운영과 학부모의 부담금을 경감해 유아교육 공교육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치영 기자

대구행복학교 학생, 행복인식도 높다

친구관계, 학습영역 유의미한 효과

복학교 운영 및 평가 모형 개발 연구에 따른 것이다.

대구행복학교 학생의 행복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이 행복학교 학생 289명과 일반학교 학생 1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행복도 검사에서 대구행복학교 학생들이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친구관계, 학습하위영역, 자원봉사활동 등에서 행복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 인식 조사 항목은 학교에 아는 친구가 많은지?, 학교 친구들과 대화나누기를 좋아하는지?, 고민을 들어줄 친구가 있는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지? 등 7개 항목이다.

여기서 행복학교 학생이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행복학교 교육프로그램이 사회적 발달에 기여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강힐링영역 행복학교인 서남중의 운영식 교무부장은 "행복학교를 운영하면서 아침시간에 교사와 학생이 함께 1인 1운동을 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등 행복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교우관계가 좋아지고 2014년에는 학교 폭력제로는 물론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이 줄고,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도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학생수 감소로 폐교될 위기에 있는 학교를 행복학교로 지정해 학교마다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이 다시 모이는 학교로 만들어 가고 있다.

또, 인성교육중심 협력학습과 행복역량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지속가능한 대구행복학교를 만들어 '대한민국 교육수도'라는 대구교육의 대표 브랜드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도 대구행복학교는 7개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기존 16개 행복학교에서 총 23개교로 확대운영하게 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추진된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해 행복역량교육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학교모형 창출 등 대구행복학교를 재조명하고 운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백순기 원장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구행복학교의 운영사례가 전국 학교에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대구행복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며, 각각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때 교육수도 대구의 대표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교육이 강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구시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한 한국교육정책연구 '대구행

지우현 기자

대구대 장애학생 창업동아리 '장목들' 창업경진대회 금상 수상

'저상버스 탑승 알림 앱' 실제 경험 바탕으로 저상버스 탑승·안전 향상

장애학생들이 직접 겪은 불편한 점을 창업아이템으로 개발하고 상까지 수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대학교 장애학생 창업동아리 '장목들(장애학생 목소리가 들려)' 학생들이 지난 2월 열린 '2014 대경강원권 창업경진대회'에서 금상(2위)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대경·강원권 소재 대학의 우수 창업인재 발굴·육성 및 우수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회로, 경북대학교 코어(Core) 기술혁신형 겸 산학협력중개센터와

LINC사업단 주관으로 열렸다.

학생들이 제출한 작품은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탑승 알림 어플리케이션(앱)'. 몸이 불편한 장애인 승객이 자신이 탑승할 저상버스와 승·하차 정류장 번호를 이 앱을 통해 입력하면 해당 버스 기사는 운전석에 설치된 표시등을 통해 이를 알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 앱은 버스기사가 정류장에 있는 장애인 승객을 못보고 지나치는 것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승·하차를 사전에 인지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앱은 동아리 소속 한 장애학생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장목들'의 팀장인 강경식(지체장애 1급, 가정복지학과 3년) 씨는 2013년 겨울 늦은 저녁에 대구대 기숙사로 들어오기 위해 대구 지하철 안산역에서 저상

버스를 기다리던 중 3차례나 버스가 지나치고 막막하며 끔찍한 일을 당했다.

다행히 경찰의 도움으로 기숙사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추위에 떨며 2시간 넘게 기다린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상하다고 말했다.

강 씨는 "저상버스는 배차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 두 차례만 놓쳐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며, "시간도 그렇지만 버스가 그냥 지나치면 괜히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어 쓸쓸했다"고 말했다.

이 동아리 학생들은 지난해 8월 대구대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주관한 '장애학생과 함께 하는 창업캠프'에서 만났다. 지체장애, 청각장애(2명), 수화통역사, 일반학생 등 5명이 모여 팀을 꾸렸고,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장애인 창업아이템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이후 아이টে을 가다듬어 완성도를 높였고, 이번 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하게 됐다. 받은 상금 중 일부를 대학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대구대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 작품의 특허를 출원해 최근 등록됐다. 현재 기술적인 보완 작업을 거쳐 앱 등록을 준비 중이다.

강 씨는 "일반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장애인들에게는 큰 벽과 같이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시각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작은 아이디어들이 실생활에 잘 적용돼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영은 기자



'나의 청렴 스토리' 추진

경북교육청, 9월 21일까지 공모

경북도교육청은 소통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각급기관, 공립·사립학교 소속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이야기가 있는 청렴 '나의 청렴 스토리'를 오는 23일부터 9월 21일까지 추진한다.

응모방법은 감사관 블로그(http://cleangbe.blog.me)에서 응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청렴을 주제로 소개하고 싶은 사진, 그림, 영상 등과 함께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해 도교육청 홈페이지 '청렴한세상(청렴 스토리)'에 탑재하면 된다.

'이야기가 있는 청렴, 나의 청렴 스토리(STORY)'는 지난해 8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280여 명이 참여한 '청렴다짐 릴레이'를 새롭게 보완하고 참여 대상을 고위직으로 확대한 것으로, 올해는 6급 이상 행정실장 및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500명 이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경북교육 모니터단의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명을 선정하고 등급별 교육감 상장과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추진실적에 따라 우수기관 및 업무담당자를 시상할 계획이다.

김치영 기자

수도권 대학 입학담당자와 대구 교육의 만남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교육의 우수성 적극적 홍보

수도권 주요 1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등 입학관련 업무담당자와 우리 지역 일반계고 교장, 교감, 교사 및 교육청 담당자 등 총 18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 대학과의 정보를 교류·공유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 입학담당자와 대구 교육의 만남' 행사를 오는 12일 라온제나 호텔(구 세인트웨스턴 벅어)에서 갖는다.

대학 입시는 수시전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대구교육의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한 학생들을 알리고자 대구교육청은 벌써 4번째 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직접 서울지역을 방문해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수도권 주요대학 입학담당자들을 대구로 초청해 실시함으로써, 더 많은 학교 및 교사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관계자들도 보다 여유 있게 교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 행사는 경대사대부고 등 10개 고등학교가 우수한 교육활동에 대해 소개 및 홍보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각 대학별 수시전형의 핵심

사항에 대한 안내,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패턴 등에 대해 터놓고 교류하는 등 고교와 대학이 상호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특히 교장, 교감이 40명이나 참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학교의 관심이 고조돼 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주요 18개 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입학담당자 들에게 우리 지역의 교육의 우수성, 대구 문화의 속성 등을 이해하게 하고, 대학 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 진학 지도를 위하여 기획됐으며,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6학년도 대학 입시(특히 수시 전형)에 필요한 입시 정보를 대학과 고교 현장이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학교와 교사들이 보다 과학적인 대학 입시의 방향을 정립하고, 수도권 대학과의 협력 등 고교-대학 연계 강화를 통해 우리지역 학교 및 교사들에게 직접 대학과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학 입학담당자가 우리 지역 학교 및 교육의 감정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지역 학생들의 대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우현 기자

달성교육지원청, 계명대 공자아카데미와 업무 협약

자유학기제·중국문화 교류 지원 협약

대구달성교육지원청과 계명대학교 공자아카데미는 지난 6일 달성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중국문화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중국문화 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중국 전통차 문화 교육

및 체험, 중국 전지공예, 전통탈공예 체험 등 중국문화 관련 교육이며 중국문화를 이해하고 외국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계획이다.

김영근 교육장은 "향후 학생들이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금오공대-한국도로공사, 업무협약 체결

금오공과대학교와 한국도로공사는 10일 상호 협력시스템 구축과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로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산학연관 공동연구개발 및 상호협력 △연구인력, 장비 등 인프라 공동 활용 △학술 및 기술정보 등의 교류 △공공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운영을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금오공대는 대학의 교육 콘텐츠와 인적자산을 포함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도로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산을 무상 기부하기로 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정보의 공유 및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양 기관은 또 지역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산학협력 아이템 개발을 위해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김기환 기자

스포츠

김재강·신지영, 경북 최고체육상 최우수 선수

경북체육회, 2015 정기 대의원
총회·최고체육상 시상

경북도체육회는 10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에서 2015년 정기 대의원 총회 및 최고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후 2014년 사업결산, 규약 개정 등의 안건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2014년도 경북체육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활약을 펼친 체육인을 선정(본상 개인 7명, 단체 1팀, 특별상 개인2명, 단체 2팀)해 '경북 최고체육상'을 시상했다.

'경북 최고체육상' 본상부문 공로상에는 서중호 전 경북테니스협회장이 지난 8년간 경북테니스협회장으로 제임하면서 전국체전 및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성적 입상과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북도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수상했다.

지도상에는 전국체육대회 출전해 한국신기록 6회, 금 5개, 은 1개, 동 4개를 획득한 김기홍 안동시청 롤러팀 감독이 각각 수상했다.

또 최우수상에는 전국체전에서 4연패(2011~2014)한 김재강(칠곡군청 레슬링팀)선수와 지난 3년간 전국체전에서 금 3개, 은 2개, 동 2개를 획득한 신지영(경북체고 사이클팀) 선수가 수상했다.

최우수단체상에는 전국체육대회에서 한국신기록(3개) 및 대회신기록(3개)을 수립하고 금 17개, 은 2개, 동 7개의 메달을 획득한 경북도청 펜수영팀에게



김재강(칠곡군청 레슬링팀)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신기록상에는 '제95회 전국체전'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김서영(경북도청 수영팀), 이명규(안동시청 롤러팀), 김현진(경북도청 펜수영팀) 선수가 각각 수상했다.



신지영(경북체고 사이클팀)

특별상에는 경북승마협회가 모범경기단체상을, 문경시체육회가 시·군지부상에 선정됐으며 김용선(포천고 축구팀 김덕중 선수 아버지)씨와 최정자(경북체고 수영팀 김가을 선수 어머니)씨가 장한어버 이상을 수상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올해는 도에서 군인체육대회, 세계물포럼, 실크로드문화대축전 3대 국제행사 및 200여개의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열리는 만큼 경북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는데 체육인이 큰 몫을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영 기자

박인비 2주 연속·2년 연속 우승 도전

3월12일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출전
파73·7808야드... 총상금 60만 달러



지난 주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한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2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 박인비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의 미션 힐스 하이커우 블랙스톤

코스(파73·7808야드)에서 열리는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60만 달러)에 출전한다. 최근 HSBC 위민스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한 박인비가 2주 연속으로 정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박인비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해 2연패에도 도전한다.

박인비는 HSBC 위민스 챔피언십을 통해 지난해 11월 푸봉 타이완 챔피언십 이후 4개월 만에 우승의 단맛을 봤다. 무엇보다 보기를 단 1개도 범하지 않으며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라운드 내내 선두였다.

박인비는 "지난해 이 대회 우승으로 한 해를 잘 시작했고, 결과도 좋았다. 이곳에 돌아와 기쁘다"며

"챔피언 타이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했다.

2013년 챔피언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과 지난해 3위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도 출전한다.

이 대회는 개인전, 단체전, 개인 아마추어 등 세 가지 형식으로 구성, 치러진다.

72홀 스테르크 플레이로 개인전 우승자와 아마추어 우승자를 가리는 동시에 나라별로 2명의 선수가 팀을 이뤄 개인전 스코어를 합산해 단체전 우승자를 가린다.

박인비는 2013년 김하늘(27·하이트진로), 지난해 유소연과 함께 단체전 2연승을 거뒀다. 3연승에 도전한다.

한파 기세등등 프로야구 물리쳤다

프로야구 경기가 모두 한파로 취소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0일 오후 1시 목동(두산-넥센), 대전(SK-한화), 포항(KIA-삼성), 사직(LG-롯데), 마산(KT-NC)구장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시범경기가 추위로 인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적으로 꽃샘추위가 찾아오자 KBO는 경기를 개최하기에 부적합한 날씨라고 보고 취소키로 했다. 추위로 시범경기가 취소된 경우는 4년 만이다. 2011년 3월25일 광주 KIA-두산전이 가장 최근 한파로 열리지 못한 경기였다.

이날 서울이 영하 6.8도에 이르는 등 출근길 전국의 아침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절정에 달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 한파특보와 함께 강풍특보가 발표되기도 했다.

취소된 시범경기는 재편성되지 않는다.

박주영, FC서울과 3년 계약
"연봉은 백의종군 수준"



스트라이커 박주영(30)이 서울 유니폼을 입고 국내 프로축구에 돌아온다.

서울은 박주영과의 3년 계약이 성사됐으며 그가 곧 팀 훈련에 합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제하 서울 단장은 "연봉은 지금 바로 밝힐 수 없으나 백의종군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주영이 연봉과 같은 계약조건보다는 K리그에서 선수생활을 잘 마무리할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덧붙였다.

박주영은 K리그 클래식에서 선수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2005년 서울에 입단해 프로 무대에 뛰어들었으며 2008년까지 91경기에서 33골, 9도움을 기록했다.

데뷔 시즌에 18골을 터뜨려 신인왕에 등극하며 가장 화려한 시절을 보냈다.

박주영은 프랑스 프로축구 모나코에서 활약했으나 잉글랜드 아스널에 진출하고자 출전기회를 잡지 못해 예를 태웠다.

스페인 셀타 비고, 잉글랜드 와퍼드, 사우디아라비아 알사바 등지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다가 국내 복귀를 결정했다.

박주영은 한국 축구 대표팀에서 한때 부동의 스트라이커로 활약했다. 그는 2006년 독일,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작년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했으나 2015 호주 아시안컵에는 결장했다.

울리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이 박주영의 실전감각을 저평가해 신에 스트라이커 이정협을 대신 선발했다.

서울은 2013년 득점왕 타이틀을 중국 리그로 이적시키고 나서 스트라이커 부재에 시달려왔다.

박주영의 골 결정력이 높은 만큼 그간 약점으로 지적받은 마무리 능력이 보완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은 박주영이 골잡이로서 타고난 감각을 꾸준한 출전을 통해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K리그 클래식은 박주영의 가세로 올 시즌 흥행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정호 MLB '美 진출 후 첫 3루수'

허들 감독 "강정호 활용폭 커질 수 있다 만족감 드러내"

미국 무대 진출 이후 처음으로 3루 수비를 소화한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편안하게 수비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강정호는 1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브래드던의 맥케이크 필드에서 열린 2015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 미네소타 트윈스와 경기에서 5회말 대타로 출전, 3루수로도 나섰다.

그는 이미 미국 무대 첫 시범경기인 지난 4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전에서 훔친 한 방을, 이를 뒤인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2루타 한 방을 때려내며 장타력을 뽐냈다.

이미 장타를 뽑아내는 동시에 유격수로도 안정적인 수비를 펼친 강정호에게 클린트 허들 감독은 3루수를 맡게했다. 감독이 가능성을 타진하는 만큼 이날 강정호에게 과제는 안정적인 3루 수비였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도 이날 타격에는 신경쓰지 않고 수비에만 주목하는 모습이였다. 5회말 레다메스 리즈의 대타로 나선 강정호는 6회초부터 3루를 지켰다.

강정호는 7회초 선두타자 트레버 플루프의 땅볼 타구를 잘 잡아 1루수 호세 오수나에게 안전하게 송구했다.

강정호는 8회 무사 2루 상황에서 도루를 하려다가 2루와 3루 사이에서 런다운에 걸린 애런 히스를 포수 엘리야스 디아즈, 유격수 페드로 플로리몬과 함께 잡아내기도 했다.

유격수 플로리몬과 공을 주고받으며 히스를 몰아붙인 강정호는 직접 태그해 히스를 아웃시켰다.

MLB.com은 강정호의 수비를 두고 "피츠버그 유니폼을 입은 뒤 처음으로 3루수로 나선 강정호는 자신에게 쏟은 관심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그만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수비를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강정호를 유격수, 2루수, 3루수로 고르게 활용하려는 피츠버그의 계획에는 어떤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국으로 떠나면서 "웬만하면 유격수로 뛰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실 3루수가 강정호에게 마냥 어색한 자리는 아니다.

강정호는 2008년 중반 넥센 히어로즈의 주전 유격수로 자리잡기 전까지 3루수와 2루수를 오가는 내야 유틸리티 플레이어였다. 2010년 광저우아시안 게임과 201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유격수 뿐 아니라 3루수로도 나섰다.

허들 감독은 강정호를 유격수 자원으로 보고 조디 머서와 경쟁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그의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같은 강정호의 능력을 잘 활용하면 팀의 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미 2루수와 3루수를 넘 뛰고 조시 해리슨이 맡은 상황에서 머서가 주전 유격수 자리를 꿰차면 강정호를 내야의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허들 감독은 세 차례 강정호를 유격수로 선발 출전시킨 뒤 3루수로 교체 출전시키며 가능성을 타진했다. 강정호는 11일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시범경기에서는 또다시 유격수 겸 5번타자로 선발 출전한다.

강정호는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이며 허들 감독을 흡족하게 했다.

허들 감독은 "언젠가 강정호를 또다시 3루수로 뛰도록 할 것이다"며 "강정호는 예전에도 3루수로 뛰 적이 있다. 편안해 보였고 3루수로 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강정호가 훈련과 실전을 모두 소화했다. 강정호가 3루수로도 뛸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그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강정호는 "편안하게 수비했다"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3루수로 뛸 것은 2년 전 WBC인 것으로 기억한다"며 "유격수와 3루수로 번갈아 나서는 것은 그다지 대단한 도전은 아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3루수로 뛸 적이 있다"고 전했다.



Sports



대구광역시
2015년 3월 11일 수요일 13

자신만만하다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다.
72년생 재물이나 여성 문제로 망신수가 있으니 침착하게 처신하라. 고리가 걸린 안전기는 밟히는 번. 자신이 있는 현재 위치를 다시 생각해 볼이 좋을 듯. 5. 0. 7년생 구실이 따르니 주의하라.

52. 64년생 7. 0. 7년생 손조롭게 잘된다고 허황된 생각은 금물. 권위주의를 버리고 남을 생각해 줄줄 알아야 할 때. 꽃이 피고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좋은 결실 있었다. 그 결실의 때가 눈 앞에 와 있으니 유의하라. 5. 7. 9년생 동업은 피함이 좋을 듯.

68년생 7. 7. 0. 7년생 계획한 것이나 사업 전망은 모두 밝다. 능력주의 시대이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힘껏 밀고 나감에 좋을 듯. 한집을 버리고 새로 신축하려면 망설이지 말고 시도하라. 5. 8. 11년생 북. 서쪽에서 좋은 소식 들릴 듯.

계획한 일이 안된다고 낙심하지 마라. 지금 현재는 참을성이 필요한 시기. 자신과의 싸움을 일라. 6년생 금전 관계로 구실이 뒤따르니 형제간 도움이 요구된다. 1. 4. 11년생 쥐. 말. 돼지띠 있으면 긴장해 보라. 남. 서쪽에 귀인이 나타날 수.

66년생 3. 5. 9년생 목적을 위해 물결을 안 가리고 덩벼들었다가 실망이 크겠다. 분수를 지키고 한걸음 뒤로 물러났다 전진할 때 좋은 결과 있을 듯. 5. 0. 7년생 자식 걱정하다가 다행. 평타 놓치는 격이니 냉정한 판단이 요구됨. 누군가 도움주면 반의라.

주변의 조언을 경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상책이다. 문서관계에 신중을 기하라. 45. 69년생 0. 7. 7년생 남의 일에 휘말려서 자기 것까지 빼앗길 수다. 1. 5. 9년생 큰 자식에게 근심할 일 생길 듯. 매서 행성 조심하고 말을 적게 하라.

나무에 일이 푸르게 무성하듯 당신은 지금 서광의 빛이 눈앞에 와 있음을 일라. 이 운을 잡아라. 74년생 5. 7. 0. 7년생 언어 조심해야만 다 된 법에 재빠른 결과를 모른다. 1. 2. 3년생 파란색이 행운의 색. 푸른 개통 옷을 입어라.

성공한 행동은 오히려 해를 가져온다. 때를 기다리며 자기 수양에 힘쓸 때다. 54년생 7. 7. 7. 7년생 사업이나 가정문제로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새 출발하라. 1. 7. 11년생 진실한 삶을 추구하고 지기가 한 말에 책임자야 구실이 없다. 감정색은 삼가라.

자기주장만 내세워 하고자 하는 일을 급히 서두르다 보니 벌어진 불운을 본 결과는 언뜻 못한 채 방향을 틀어 7. 7. 7. 7년생 건강을 지키는 것만이 사업에 성공하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때. 1. 5. 8년생 매미귀 불이. 7년생 관세주 조심.

문주하기만 할 뿐 소욕이 없다. 무엇이든지 신중을 기해 일을 처리하라. 5. 63년생 과욕은 버리고 순리대로 분수를 지킴이 좋을 듯. 애정으로는 꽃이 피다 갑자기 지는 격. 신세를 진실로 마 음껏 사랑해 줘라. 1. 3. 5. 9년생 남쪽에 방해자 조심.

매사 꼬이는 것 같아도 약간의 어려움만 이겨 낸다면 반드시 노력의 대가 있을 듯.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 서두르지 않는다면 서서히 운이 열릴 듯. 5. 0. 7년생 나이 차이로 애정이 멀어지면 사랑은 거짓된.

47년생 5. 0. 7년생 고생 끝에 낙이 있듯이 많이 있듯이 고생을 남기고 좋은 시기가 펼쳐지는 날이다. 채우관계. 재만 건으로 고심하라. 고대의 마음 하늘이 돕는다. 당신이 남자라면 1. 4. 9년생 아내와 자식 사랑하는 마음 겉으로 표현하라.

생활 속 국악, 대화가 있는 무대...

화요상설공연
월 1회(3-10월) 저녁 7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서



2015. 3. 17
2015. 4. 14
2015. 5. 26
2015. 6. 16

한국무용 '오색찬란'을 준비한다.

그 밖에도 국악 창작곡의 초창기 작곡인 야금 중주 '침향무'와 경기민요(민요-예현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이수자)도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은 '삼도 설장구'로 장구 연주의 멋진 발림(몸동작)과 화려한 장구가락으로 한층 흥을 돋우는 무대로 공연을 마무리 한다.

대구시립국악단 상설공연은 2014년에도 총 8회 중 절반 이상의 공연이 매진되는 등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공연에서는 해설을 더욱 강화, 관객과 대화하는 무대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매 공연마다 민요, 가곡, 병창, 무용 등 국악의 다양한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는 방향으로 구성한다. 유경조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무로 상설공연 만큼 국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241석 규모의 소극장인 비슬홀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로 꾸며, 관객들이 국악을 더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대구시립국악단 화요상설공연은 공연 당일 선착순 무료입장으로, 대구시립예술단단체운영팀(053-606-619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공연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식 기자

대구시립국악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유경조)은 전통음악의 보존 및 우리 음악의 대중화를 위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총 8회에 걸쳐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무료 상설공연을 연다.

매년 꾸준히 상설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대구시립국악단의 2015년 상설무대는 국악 실내악을 중심으로 하여 해설이 있는 무대로 펼쳐진다.

상설공연 첫 무대는 오는 17일 저녁 7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개최, 국악합주와 독주곡, 경기민요, 한국무용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첫 곡인 관악합주 '수제천'(집박_이현창; 대구시립국악단 악장)은 가장 오래된 궁중악의 하나로, 궁중연례악이나 처용무의 반주음악으로도 유명하다.

한국전통음악에서 아악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음악으로 상설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곡으로 선보인다.

독주곡으로는 거문고산조(거문고_유수연; 대구시립국악단 단원)를 만날 수 있다.

한국무용(안무-채한숙; 대구시립국악단 한국무용 안무자)으로는 봄 피조리를 본 판 춤인 향악정제 '춘앵전'과 반길군악, 굿거리, 휘모리 등의 장단 바탕으로 무용을 만든 창작

“나는 남편손에 무참히 죽어 세상 등졌다”

남편·애인에 살해당한 여성 작년 최소 114명
살인사건 분석... 살아남은 여성 최소 95명으로 집계

이는 1.7일 간격으로 여성 1명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한다는 의미라고 한국여성전화는 해석했다. 피해 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도 57명에 달했다.

또한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40대가 25%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17%, 30대 15% 순이었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고루 발생해 여성은 전생애에 걸쳐 폭력에 노출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10대 피해자가 7명으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폭력이 발생하는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10대는 연령상 배우자 관계가 아닌 데이트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한국여성전화는 가정폭력이 아닌 데이트 폭력에 관한 정부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고 낸 통계에서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살해당하는 여성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최소 114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전화는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한해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114명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살인 미수로 겨우 살아남은 여성도 최소 95명으로 집계됐다.



눈 피로에 좋은 지압법

컴퓨터 모니터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는 직장인들은 눈에 피로가 많이 쌓인다.

이때 눈에 적절한 지압을 해 주면 눈의 피로를 해소하면서 눈눈을 맑게 해 줄 수 있다.

눈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압법은 눈 주위 눌러주기가 핵심이다. 눈썹 끝과 눈썹 끝 부분이 만나 움푹 들어간 곳을 태양혈이라고 부르는데 이 곳을 지긋이 눌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검지와 중지로 눈 주위 뼈대를 꼭꼭 눌러준 뒤 눈 양쪽 옆 태양혈을 조금씩 강도를 높이며 눌러주면 된다. 태양혈이란 흔히 '관자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양쪽 눈과 코 사이의 작게 파인 곳은 정명혈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주고 눈을 감은 뒤 손가락을 펴서 눈동자 위를 가볍게 눌러주면 눈 피로 해소에 좋다. 구선영 기자

여야 의원들 ‘성평등 국회’ 비전선언문 채택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
성평등한 국회, 더 좋은 민주주의
비전선포식 여야의원 140여명 서명

여야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열고 '성평등한 국회 만들기'를 주제로 한 비전선언문을 채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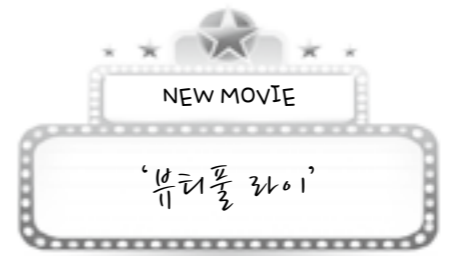
이날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새한국여성정의가 공동 개최한 '성평등한 국회, 더 좋은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비전선포식의 선언문에는 여야 의원 14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더 좋은 민주주의와 더 나은 국회를 위한 비전으로 '성평등한 국회'를 제시한다”며 선언문에 담긴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여성국회의원이 30%가 되도록 제도화에 노력하며 특히 상임위원장과 간사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국회의장 선거 '성평등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성평등국회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 자문



수단의 잃어버린 아이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1983년 시작돼 22년간 지속한 수단 정부군과 남부 반군 수단인민해방군(SPLA) 간의 내전으로 250만명이 죽고 4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1만8000명의 아이들은 세계 각지를 떠도는 미아가 됐다.

20세기 최악의 참극 중 하나로 꼽히는 수단 내전. 이 기간 반군에게 '총알받이'로 강제로 잡히거나 아랍계 군인의 횡포를 피해 국경을 넘는 아이들을 가리켜 '잃어버린 아이들'이라고 한다.

영화 '뷰티풀 라이'(원제 'The Good Lie')는 바로 이 수단의 '잃어버린 아이들'의 이야기다. 내전으로 부모를 잃은 마메르는 형 테오, 여동생 아비탈 등과 함께 반군을 피해 안전한 곳을 찾아 풀 대신 소변을 마시고, 동물이 뜯고 남은 짐승의 사체를 먹으며 견고 또 견고다. 그러다 아이들이 난민을 뒤쫓는 군인에게 팔릴 위기에 처하자 테오는 다른 아이들을 살리려고 혼자 끌려간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서로 의지하며 수백 km를 걸은 아이들은 마침내 케냐의 카쿠마 난민 캠프에 도착하고, 그로부터 13년 뒤 미국으로 이주해 정착할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동생 아비탈과 공황에서 헤어지게 된다.

영화는 수단의 '잃어버린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 난민 캠프의 생활을 거쳐 낯선 땅 미국에 정착하며 살아가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따라간다.

기내식에 나온 버터를 뚝뚝 먹고 맥도날드가 뭔지도 몰랐던 이들이 미혼이라는 직업 소개사 캐리(리즈 위더스푼)에게 “팅팅 집을 채워줄 남편을 찾으시길”이라고 인사를 건네거나 목장이 딸린 집을 소유한 직업소개소 사장에게 “아버지가 추장이셨습니까?”고 묻는 등 ‘글로벌 배운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문화적 차이와 어우러지며 소소한 웃음을 준다. 하지만 영화는 단순히 이들의 적응기를 가벼운 웃음거리로 소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잊고 지낸 인간성과 가족애를 되돌아보게 한다.

일 자리를 찾아 준 캐리에게 고맙다며 오랜



자리를 사 들고 찾아가는 마메르의 따뜻한 마음씨나 마메르와 함께 미국에 온 예레미아가 마테에서 일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리는 사장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며 반발하는 모습 등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동생의 죽음을 가슴에 묻은 채 마냥 까칠했던 캐리가 조금씩 마음을 연 것처럼 '잃어버린 아이들'은 닫혀 있던 관객의 마음도 조금씩 두드려며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다.

그런 점에서 '잃어버린 아이들'은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발견된 존재다.

선조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목장의 소떼와 밤하늘의 별을 보고 고향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는 이들의 모습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울 정도로 잔잔하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테오의 용기 있는 선택에 이어 테오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마메르가 케냐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용기'에 가슴이 작열하며 먹먹해진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실제로 '잃어버린 아이들'이다. 마메르를 연기한 영국 출신의 배우 아널드 오생, 예레미아 역을 맡은 미국 배우 겸 모델 게르 두아니, 미국 생활에 적응을 느끼는 폴 역의 합합 뮤지션 엠마뉴엘 잘 등은 모두 어린 시절 군인에게 소년병이 될 것을 강요받고 오랫동안 잔인한 대우를 받았던 아이들이다.

극 중 케냐의 난민촌을 향해 길을 떠나는 수많은 아이들 역시 모두 수단 난민 출신의 부모를 둔 자녀들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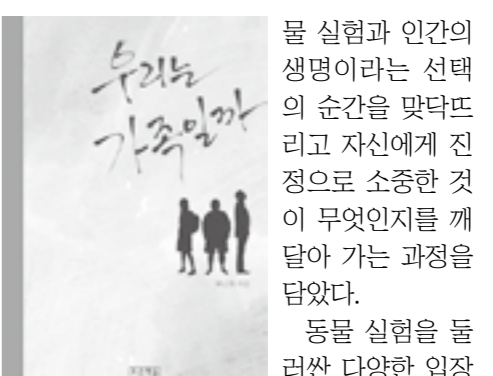
론 하워드 감독이 제작을 맡았다. 3월 26일 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110분.

우리는 가족일까 새책안내

유니게 지음 / 푸른책들

주인공인 열일곱 살 해운에게는 가족 중 누구와도 관계가 쉽지 않다. 7년 전 이혼한 부모 때문에 동생을 미국에 두고 돌아와 아빠와 함께 산다. 해운이를 방황하게 한 것은 갑작스럽게 들려온 엄마의 부고였다.

이는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7년 만에 돌아온 낯선 동생 형준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가족 간의 물리적 결함이나 진위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에 대한 고찰이다. 극심한 고통을 직면한 순간에 시작되는 성장사를 겪는 모든 청소년에게 보내는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물 실험과 인간의 생명이라는 선택의 순간을 맞닥뜨리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는 과정을 담았다.

동물 실험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의 차이를 균형

50 대 50 S.L. 파월 지음 / 홍지연 옮김 / 라임

'동물 실험'이라는 논쟁적인 주제를 '인간의 생명'과 연계하여 사춘기 아이의 시선으로 그려냈다.

부모의 과보호와 간섭에 갑갑함을 느끼던 열다섯 살 소년 길이가 반항심으로 동물 권리 보호론자와 여러 사건을 일으키다가 동

있는 시선으로 풀어냈다. 일방적으로 한쪽은 옳고 한쪽은 그르다는 이분법적인 시선을 경계하고 각각의 입장이 가진 장단점을 솔직하게 보여준다

■ 가족의 초상
오사 게렌발 지음 / 강희진 옮김 / 우리나비

한 가족의 주변, 정확히는 반항기의 딸 주변으로 펼쳐지는 심리 드라마다.

책은 걸은 세상 누구보다 가깝지만, 어찌된 남남보다도 더 못한 가족의 실체를 무참하게 까발린다. 남편과 아내, 아빠와 딸, 엄마와 딸, 자매 사이에서 꿈틀거리는 대화의 단절, 갈등과 긴장, 소외감 등 일그러진 가족의 초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청도 이서면 부녀동우회, 새봄맞이 청도천 이서교 일대 환경정화 활동

지난 9일 오전 10-12시까지 청도군 이서면(면장 금구연) 부녀동우회(회장 장명숙)에서 회원 3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청도천 이서교 일대에서 새봄맞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전·현직 새마을 부녀회장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환경정화 캠페인과 쓰레기 및 오물을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장명숙 이서면 부녀동우회 회장은 "이 행사가 단순히 동우회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주변 환경정화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되 내 집앞 내가솔기 운동, 재활용품 경진대회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규 기자



상주시 공검면농업인회, 경로당, 저소득 세대 상품 전달

상주시 공검면은 지난 5일 공검면농업인회에서 기증한 백미 57포(570kg, 140만원 상당)를 관내 경로당과 지역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에 면 직원들이 일일이 방문, 전달해 훈훈한 미담이 됐다.

면에서는 '할매할배의 날' 조기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경로당 및 결연 독거노인 방문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신우 면장은 "어르신들 없이는 현재의 우리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감사와 정을 나누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지속적인 경로효친사상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오재영 기자



김치원 경북경찰청장, 문경경찰서 치안 현장 방문

김치원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지난 9일 문경경찰서를 방문해 주요 치안현안 파악 및 경북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치원 청장은 협력단체장,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경찰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했고 협력치안 활동에 기여한 경찰발전위원회 김종욱 위원에게 감사장을, 유공직원 김병기·박해빈 경위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현장직원과의 만남에서는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치안정책의 방향과 실천과제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며 "기초치안과 생활범죄의 확립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신뢰받고 책임을 다하는 경찰이 되자"고 당부했다.

오재영 기자

고객만족도 8년 연속 최우수 농어촌공, 현장중심 경영실천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201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공사는 2007년부터 8년 연속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조사는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84개, 기타 공공기관 70개 총 17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평가를 받은 것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만족 활동과 농어업인 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농지연금 제도 개선, 또 주민 체감형 행복추진활동의 결과"라고 말했다.

김양수 기자

엄마·아가사랑 행복교실 영주시보건소, 매월 운영



'라마즈 분만법과 호흡법, 원예작품 만들기' 주제 두시간 동안 진행, 매월 둘째 목요일 2시 실시

영주시보건소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아기와 엄마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엄마사랑 아가사랑 행복교실'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강은 12일 '라마즈 분만법과 호흡법, 원예작품 만들기'를 주제로 두시간 동안 진행하며,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보건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임신과 출산, 태교, 육아, 건강관리 등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산전산후정보를 수준 높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 제공하게 되며, 임산부와 가임여성 등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액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2015년에는 모유수유, 출산용품 만들기, 산후 비만관리 및 다이어트법, 산후 우울증, 임산부 건강관리 및 신생아 돌보기, 명상태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행복교실 연간 일정은 시정 및 보건소 홈페이지와 임산부 SMS를 통해 안내하고 있

으며, 수강 신청은 매회 선착순 40명에 대해 영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639-6435)으로 접수하면 된다.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임산부 영양제 지급, 유축기 무료대여사업 등의 시책과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역 기업 및 단체와 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셋째 이상 출산여성 한방침약사업, 셋째 이상 구급함 지급, 육아용품 지원 등의 출산장려시책을 연계, 안내·제공하고 있어 임산부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시책 체감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첫째에 이어 둘째 아이 임신 때에도 수강하는 임산부들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매년 수준 높고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부 가정에 원스탑 맞춤형 출산장려시책을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영주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코너를 5월부터 운영하기로 하는 등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고 있다.

전상기 기자

상주시장학회 천경호씨 장학금 500만원 기탁

상주지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재)상주시장학회에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상주시 남성동에서 인쇄업을 하고 있는 천경호씨(48·한일사 대표)는 10일 인재육성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상주시장학회에 5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달 9일 부친상을 치르고, 평소 부친이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말라'는 유지를 받들어 가족회의를 거쳐 부의금 중 일부를 상주시장학회에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천대표는 가족들을 대신해 "고인의 장례식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어 애도와 위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고인의 뜻에 따라 상주시장학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대표는 지난 2012년에 200만원, 2013년도에 300만원을 (재)상주시장학회에 기탁했으며, 8년 전부터 모교인 상주고등학교에 매월 10만원씩 발전기금을 기탁해 왔다.

이정백 상주시장학회 이사장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꿈과 용기를 기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정성어린 기금을 모아 상주시장학회에 기탁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교육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재영 기자

권오영 청송교육장, 인재양성 장학기금 기탁

경북도 청송교육지원청 권오영 교육장은 10일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에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장학기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권 교육장은 안동교육대학교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 석사)을 졸업, 지난 1977년

초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울릉·봉하·울진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장학사, 용성초·사동초 교감, 영화초 교장, 영양교육지원청 및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을 역임했다.

권 교육장은 "청송군 인재양성에 힘을 보태고자 장학기금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 교육장은 지난 1일자로 청송교육지원청에 부임 후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동수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보다 많은 지역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권오영 교육장이 직접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서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문경 산북면 친절·질서·청결의식 실천 앞장

3R자원다시모으기대회를 통해 25톤 재활용품 모아

문경시 산북면과 산북면새마을지도자회(회장 권준길, 부녀회장 조정숙)는 지난 9일 산동농협유통센터앞 공터에서 200여명의 많은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3R 숨은자원 다시모으기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갖고 25톤의 재활용품을 모았다.

이날 산북면 25개 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은 지난 1주일간 겨우내 생활쓰레기와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고 버려졌던 헌옷, 고철, 폐지, 농약병, 농촌폐비닐 등 폐자원을 새봄맞이 마을대청소와 함께 일제수집 해 자원의 재활용과 깨끗한 청정환경 조성에 앞장 섰다.

특히 3R 숨은자원 다시모으기 행사와 함께 다가오는 10월에 개최되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 지원과 범시민 새문경만들기운동 추진 캠페인도 함께 실시해 대회성공 개최의 핵심인 시민의 친

절, 질서, 청결의식 함양과 자발적인 참여정신을 일깨워 깨끗하고 친절한 선진문경 이미지 제고에 한마음을 모으는 계기도 마련했다.

권준길 산북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오늘 여러 기관단체에서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새마을단체는 제2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참된 국민운동 선도체로서 친절, 질서, 청결의식 함양과 실천에 앞장서서 제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현호 산북면장, 김욱 개발자문위원장, 강영순 이장자치회장, 양준석 바르게살기위원장도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일일이 격려하면서 "자원 재활용을 통한 청정한 문경 이미지 조성과 더불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민의 선진 시민의식 고취에 일조한 좋은 행사가 됐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참여와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오재영 기자



문경 동로면새마을회 사랑의 헌옷모으기 운동

동로면 관내 20개 마을 부녀회원 헌 옷 약4톤 분량 일제 수거정리

문경시 동로면 새마을회(회장 권기복, 부녀회장 이복례)는 지난 9일, 동로면사무소 마당에서 사랑의 헌옷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로면 관내 20개 마을 부녀회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모은 헌 옷 약 4톤 분량을 일제 정리하고 문경시 새마을회에서 개최하는 헌옷모으기 경진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끝마쳤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남녀지도자 20여명은 완연한 봄날씨를 보이던 지난 주말과는 달리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모두들 하나같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헌 옷 정리에 힘썼다.

사랑의 헌 옷 모으기 운동은 각 가정에서 쓰지 않는 헌 옷, 이불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또한 자원절약 정신을 일깨워 시민들에게 녹색 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매년 전개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김완수 동로면장은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남·녀 지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한편 동로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 옷 모으기 운동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원 재활용 녹색생활의 선진 국민 의식을 고취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오재영 기자



성주군, 경북도 제안제도 운영평가 '우수' 수상

성주군은 경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시·군 제안제도 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지난 9일 경북도 도청에서 제안제도 운영 우수기관에 대한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제안제도 운영평가는 국민·공무원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도 및 시·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성주군은 지난 1-2월 도 평가단에 의해 기관 차원의 관심도 제고, 공모제안 실시, 제안접수 및 채택, 홍보 노력, 특수시책 추진 등에 대해 서

면 및 현지 확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동안 성주군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안 특강, 현장 제안모집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했으며, 군청 전광판 및 대형 현수막 등을 활용, 홍보한 결과, 4년 연속 제안제도 평가에서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편 성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안 활성화 시책을 더욱 다양하게 추진해 행정제도 개선으로 발전시켜 군민을 위한 공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두상 기자





익을... 생각한다

■ 광역 칼럼

교통표지판에 동서남북(東西南北)도 함께 표기하자



신 부 용
(주)교통환경연구원장

우리 조상은 이미 3000년 전에 별 자리를 보고 고인돌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뒤로도 천문학을 꾸준히 발전시켜 조선 태조 때인 1395년에는 세계 최초로 1467개의 별을 밝기에 따라 구분해 '천상열차분야지도'(국보228호)를 만들어 낼 정도였다. 이 지도가 고구려 때부터 내려오던 전천문도(全天文圖)의 석각본이라 하니 우리 조상들의 천문학 수준을 알만 하다. 물론 지금도 우리의 천문학 수준은 세계 최고급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정작 국민들은 별자리는커녕 동서남북도 잘 가리지 못한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 가운데 도로의 '출수 번호는 남북방향, 짝수 번호는 동서방향'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동서남북 방향을 알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은 도로나 지하철 말이 방향보다는 주로 지형에 맞추어 그때그때 짜깁기 식으로 건설된 데다가 안내시스템도 정작 방향을 가르쳐 주지 않

고, 지명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행인에게 길을 물으면 대부분 '큰 벽돌 집을 끼고 좌회전해서 한참 가면 왼쪽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극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도로 안내 표지를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크게 만들지만 실용성이나 편리성은 크게 뒤질 수밖에 없다. 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돈만 낭비하는 꼴이다.

구미 도시는 도로망이 마치 바둑판처럼 정돈 돼 있어 시내 어디서나 도로명과 방향으로 길을 쉽게 찾는다. 고속도로를 빠져 나올 때도 '무슨 길을 남쪽 방향으로 가려면 이곳으로 나가라'는 식이다. 동서남북 방향을 함께 안내해주시기 쉽게 찾아간다. 메시지가 단순하기 때문에 도로 안내표지가 클 필요도 없다. 지하철 노선 안내도 마찬가지다. 입구에서 해당 노선 이름에 북쪽(Northbound) 혹은 남쪽(Southbound) 등의 방향을 함께 표기해 매우 간단히 안내 한다.

우리는 어떤가? 예를 들어 동내면역에서 1호선을 타고 시청을 가려면 '1호선 갈아타는 곳'이라는 글자 밑에 '→청량리·소요산·인천·신창'이라고 써있다. 이 사람이 시청과 청량리·소요산·인천·신창의 위치를 다 알기 전에는 이 안내표지는 오히려 혼동만 줄 뿐이다.

이 안내판은 결국 1호선으로 갈아타는 사람은 모두 이 → 화살표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

인데 그렇다면 '→1호선'이라고 하면 충분할 것이다. 좀 더 친절하고 싶다면 '→1호선 양방향'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가지도 않을 종점(예: 신창, 마천, 오이도, 장암 등)의 이름을 들어 혼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나 고속도로안내표지판도 손을 봐야 한다.

이제 와서 도로망을 격자형으로 고치자든가 교통 안내판을 구미식으로 다시 만들라고 주문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다. 대안을 찾아보자. 한 가지 방법은 방향 지시 화살표 스티커를 만들어 기존의 안내판에 추가해 붙이는 것이다. 그러면 방향만 알고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며 즉 외국인에게도 훨씬 쉽게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방향 색깔로 구분하면 더욱 좋겠다.

마침 지난해 부터 도로명 주소체제를 채택했으니 어차피 교통안내표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기회에 모든 안내표지에 지명과 동서남북(東西南北) 방향을 함께 표기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 또 신설되는 도로, 지하철, 시가지 등에는 당연히 이런 방식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이 방향에 익숙해질 것이고, 다른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보다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후진성을 하나씩 고치고 제거해나가는 것이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다.

■ 윤신근 애견 이야기

개는 달리고싶다, 산책도 좋지만... <13>



윤 신 근
수의사

하루 필요한 운동량은 개 품종에 따라 다르다. 중대형견이라면 하루 5km 정도의 운동량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집 안에 묶어 놓고 키우는 개들은 운동 부족이 되기 쉽다. 주말에 한꺼번에 마라톤을 시키는 것보다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운동의 효과를 높이고자 운동 시간을 길게 하기보다는 운동의 형태와 질을 잘 선택해야만 한다.

개를 줄에 매어서 산책시키는 것도 운동의 일종이긴 하지만, 자유롭게 달리는 것과는 비

교할 수 없다. 줄에 매이지 않고 여기저기 자유롭게 뛰는 운동은 매여 있는 것보다 대 여섯 배의 운동 효과가 있음을 알아두자.

개에게 공이나 장난감 등을 찾아오도록 가르치는 것 또한 결과적으로는 비교적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상당량의 운동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길을 산책하는 것과 자유롭게 달리는 것 둘 다 개의 근육을 발달시키고 단단하게 유지시키는 데 있어 좋은 방법이다.

개가 충분히 운동했는가에 대한 가장 좋은 지표는 집에 돌아왔을 때의 반응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잠에 폴아떨어지면 운동량이 충분할 것이고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으면 운동을 더 시켜야 한다.

산책하는 것이 주인이나 개에게 기쁨이 되게 하려면 훈련이 필수적이다. 끈을 매어 걷거나 뺄 때에 개가 당기지 않고 적당한 거리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끈을 풀어

줘 부르면 곧바로 돌아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도록 훈련을 시켜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개가 가축이나 어린이, 노약자의 곁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는 노약자나 어린이, 그리고 가축에게 무서운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개들은 대부분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수영은 반드시 급류나 위험한 곳을 피해 안전한 곳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물이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곳을 택하고, 물오리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물 소지가 있는 곳도 피해야 한다. 물에서 나오면 항상 개를 타월로 닦아줘야 하는데, 개가 한기를 느끼거나 관절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의 내부나 실내가 물에 젖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대부분의 개들은 원기 있는 마사지를 즐겨할 뿐만 아니라 마사지는 과정을 통해 주인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한다. 이처럼 운동은 개가 좋은 기분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활동적인 개는 줄에 묶인 채 산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질주할 기회를 갖고 싶어 한다.

발두렁 소각만이라도 철저히 금하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온 종일 강풍이 몰아 친 9일 하루동안 경북도내에서도 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청송군 부남면 흥원2리 구미마을 뒷산에서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당국을 긴장시켰다. 군청 공무원과 소방관, 경찰관 등 300여명의 인력과 헬기 5대가 출동, 진화에 나섰지만 바람이 강해 불길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오후 3시 45분경에는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야산에서도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사유림 0.1ha를 태우고 30여분만에 진화됐다. 낮 12시 15분경에는 봉화군 상운면 구천리 야산에서 실화로 보이는 불이 나 임야 0.1ha를 태우고 1시간 15분만에 꺼졌다. 공무원과 소방관 경찰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화는 면했지만 조마조마했던 하루였다.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피해 현황을 산림청 자료로 분석한 것을 보면 총 4782건이 발생, 1만1620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43%로 단연 으뜸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논·밭두렁 소각이 18%, 담뱃불 실화 등의 순이다. 그런가 하면 삼림이 울창해지면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낙뢰에 의한 산불이 우리나라에

서도 발생하고 있어서 간벌과 방화선(防火線) 구축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올해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산불이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상상 이상이다. 산불로 탄 숲이 제 모습을 되찾고자서는 최소한 50년 이상의 긴 세월이 필요하다. 2000년 동해안 초대형 산불과 2005년 강원도 양양 낙산사 산불은 작은 실수로 일어난 산불이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 천금과도 못 바꿀 문화재를 송두리째 날려버렸다. 숲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와 이산화탄소의 대기오염, 토양훼손, 산사태와 홍수 등 2차 피해 또한 엄청나다.

산불은 당국의 힘만으로는 예방이 불가능하지만 대부분 실화한 점에서 지역주민과 입산자들의 경각심만 갖는다면 크게 경감시킬 수 있다. 특히 산림 가까이 있는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일은 이제 완전히 버려야 한다. 등산객들은 인화물질 휴대를 삼가고 입산 통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누구 할 것 없이 즉시 당국에 알려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IT왕국 명예결고 아이핀 재구축 하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정체불명의 해커 공격에 뚫리자 공공아이핀 탈퇴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달 28일부터 2일간 행정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관리하는 공공아이핀 시스템에 침입한 해커가 새 공공아이핀 75만건을 부정 발급해 갔는데도 공격 징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과 해킹수법이 고난이도가 아닌 비교적 잘 알려진 점, 반면 민간 아이핀 시스템은 동일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정부는 뒤늦게 부정 발급 사실을 파악하고, 부정 발급된 공공아이핀을 긴급 삭제했지만 기초 해킹 수준에서 공공아이핀이 뚫렸다는 사실로 인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해졌다. 사건발생을 인지한 뒤의 대응자세도 졸렬하다. 정보가 유출된 개인에게 공지가 당연함에도 지연했고, 사건에 대한 발표는 5일이나 지나 발표했다. 현재까지도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그야말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14년 정보보호실태조사(개인부문)'를 보면 지난 8년간 발급된 공공아이

핀 426만건과 민간 아이핀 1526건을 합한 총 누적 발급 건수는 약 2000만건이다.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위협에서 보호될 것이라는 신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정부의 형편없는 일처리수준이 여실히 드러났다.

관심은 행정부의 공공아이핀 시스템 전면 재구축 방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여부이다. 행정부에서 안전의 대응자세에 의구심이 증폭된 것이다. 공공아이핀을 민간단체의 아이핀 관리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실수를 인정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수정했다.

아이핀에 대한 신뢰도가 깨진 만큼 전면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재정비 작업은 당연하다. 공공아이핀 해킹 소식 이후 이틀간 1000명 이상이 공공아이핀에서 탈퇴했지만, 아이핀은 여전히 한국인들의 주요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이란 점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IT왕국답게 뚫리지 않는 공공보안시스템을 갖춰 해결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정부는 이번이야말로 "정부가 하는 일이 누가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시켜 주기 바란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15

신문맛이 달라지면 신문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15는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 편집인 겸 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옥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새로운 농협이 언제나 당신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의 가치 NH 농협

세계 물 산업의 메카!  경상북도

2015 대구·경북

세계

수

포

럼



기간_ 2015. 4. 12 ~ 17 (6일간)

장소_ 경주 화백컨벤션센터(경주 HICO)
대구 EXCO

“Water for Our Future”

- 규모** 국가정상급 포함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 연인원 4만여 명
- 내용** 포럼 - 4개 주요과정별(주제별·정치적·지역별·과학기술) 논의 및 시민포럼
EXPO & Fair - 물 관련 우수 정책, 제품, 기술 등 전시

세계물위원회(WWC)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매 3년마다 개최하는 물 분야 최대 국제행사